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주문하세요!!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22일 수요일(주간) 제405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자장군 마라톤 전역식

한 불자 장군이 36년 군 생활을 마감하는 날 36km 마라톤을 완주하는 행사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전인구 준장(국방부 개혁위원회 신국방추진단장).

이달 31일자로 정년 예편하는 전 장군은 육사 27기를 상징하는 27일에 군 생활이 처음 시작된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경기 포천 소재 6공병여단의 전역행사장까지 36km 거리를 마라톤으로 달려가 전역식을 한다.

전 장군은 이번 마라톤을 체력단련이 아닌 수행 차원에서 계획했다고 밝혔다. 수행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포교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 장군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대장 근무를 하던 1983년 이었다. 당시 한 불자 중대장이 법당에 한 번 나오라고 권유해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전 장군은 육군 39사단 법당 건립, 원주 구룡사 진입도로 포장, 치악산 상원사 종각 건립 관련 부속물 헬기 이동 지원, 원주 칠봉암 종각 및 진입도로 포장 등 각종 불사를 지원하며 자연스레 신심이 깊어졌다.

특히 92년 대구 팔공산 성전암에서 철웅 스님으로부터 불교 교리와 무술을 배우면서 불교에 심취했다. 전 장군의 불심은 아내와 아들 2명도 불자로 이끌었다.

전 장군의 마라톤은 27일로 끝나지 않는다. 3월초 서울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원공(圓空) 스님이 해안선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국토사랑 및 북한 어린이 돕기 2천km 국토순례단'에도 참여한다. 또 전역 당일인 31일자로 예비역 불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예비역 불자와 현역 불자들의 신행활동 지원에 나선다. 전 장군의 '포교 마라톤'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북한산을 두번 죽이지 말라

일부구간 공사 진행… '전면 백지화' 空約 우려

인수위, "5·6공구 공사중단 대안노선 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산 관통도로 ·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 전면 백지화 공약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 · 불암산 지역(5 · 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해 대안 노선 성사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북한산 관통도로는 수락산 구간(5공구)인 의정부시 장암동, 불암산 구간(6공구)인 서울시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방면 공사가, 경부고속철도는 양산시 법기리와 부산 노포동 일대 공사가 계속되는 등 건교부의 당초 방침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건설교통부의 노선조사위 3개월 연장 입장에 대해 "지난해 노선조사위에서 시행자와 정부측은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5 · 6공구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선조사위 활동은 새 노선에 대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노선조사위 3개월 연장은 시간끌기식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또 5 · 6공구 공사 즉각 중단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 · 관이 공동참여해 백지화 상태에서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가칭) '민관합동대안노선선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현재 연석회의 등은 국립공원 외곽부를 통과해 의정부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1안), 1안보다 더 북쪽에서 의정부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2안), 국립공원 북쪽을 우회하고 의정부 회룡천을 지나 남부순환도로(국도 3호선)를 통과해 수락산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3안) 등 3개의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미희 · 남동우 기자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서울 일광사는 전국 370여 독거노인 · 소년소녀 가구에 매달 20kg 쌀을 전달한다. 17일 일광사 주지 보혜스님과 신도들이 설을 앞두고 쌀을 모으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인허당 택호선사 13일 입적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유훈



오대산 월정사 회주 인허당 택호(宅豪)선사가 13일 오전 7시 30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라는 유훈을 상좌인 무이스님과 대중에게 남기고 방산굴(方山屈)에서 육신의 옷을 벗었다. 세수 87세, 법랍 64세.

인허스님은 '새매가 서 있고 뱀이 누워있는 형세가 쉬지 않으니 五千(오천)의 문자가 귀신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공자의 십대 제자들이 어찌 이 뜻을 알 수 있으리오! 귀고리한 호승(胡僧, 달마대사)이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以字(이자)는 새매가 서 있는 것이요. 八字(팔자)는 뱀이 누워있는 것이니, 今人(금인)은 이것을 준칙으로 삼으라'는 열반게를 남겼다.

15일 월정사 서별당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스님을 비롯 수덕사주지 법장, 관음사 주지 종하, 직지사 주지 자광, 대흥사 주지 도형, 신흥사 주지 마근, 종회의원 법등 현응 세영 스님과 함종한 전 한나라당 불자회장, 최흥집 강원도청 관광문화환경국장, 여익구 민주당 불교특위 부위원장, 권혁승 평창군수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결식에 이어 일주문 근처에서 전통법식에 따라 인허스님의 적멸상을 보이는 다비의식이 거행됐다. <관련기사 5면>

김원우 기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문광부와 논의키로

문화재청의 위상강화와 함께 문화유산보존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청으로의 위상강화와 문화유산보존기금의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추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한 정책담당자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 쪽에서도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이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조만간 인수위원회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정대총무원장 15일 사퇴

조계종 중앙선관위, 선거일정 21일 확정

선용스님 직무대행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5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섰다. <관련 기사 및 인터뷰 3면>

정대스님은 15일 오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16일 오후 총무원 청사 앞에서 종무원들과의 환송식을 끝으로 지난 3년간 총무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대스님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24일 사퇴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종회의원들이 (총무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날짜를 앞당겼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 준 종회의원 스님들과 본말사 주지스님, 종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총무부장 선용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게 됐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정대스님의 사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중앙종회에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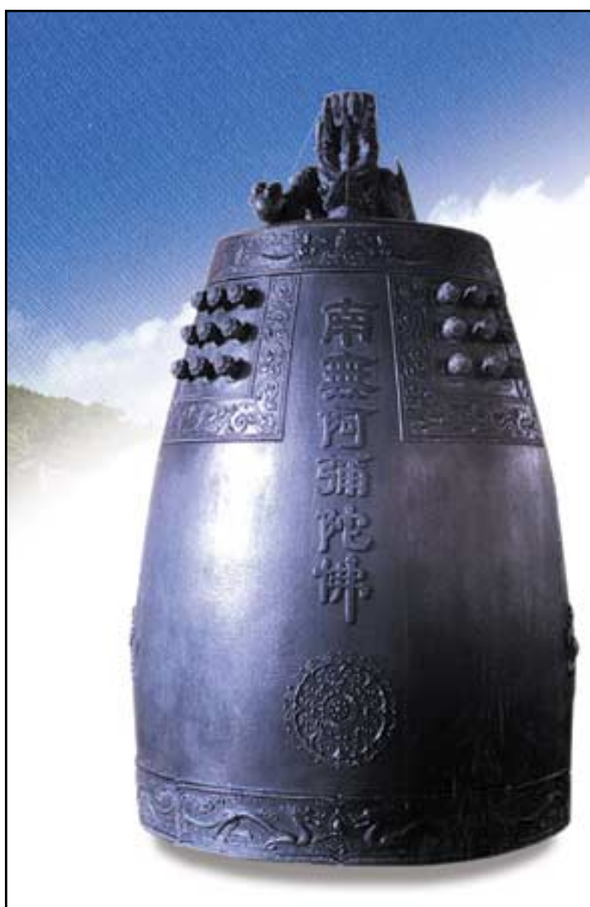
印 불가촉천민 자립지원 학교·법당건립 계속

재가연대 올 사업

인도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이 건립되고 법문 테이프 등 불교기초교재가 보급된다. 또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경제자립운동을 전개하는 불교단체에 대한 점진적 지원과 석가족을 중심으로 한 학교, 법당 시설 건립 지원도 지속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인도불교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재가연대는 2003년 사업계획에서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는 불교지도자 교육 뿐 아니라 일반불자 대중 수행공간과 불가촉천민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설건립지원 대상 법당 및 명상센터 불상봉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011)266-8639

사 설

포교환경 조사를 환영하며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포교환경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우선 50여개 사찰을 표본으로 삼아 각 사찰의 포교예산비율, 포교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신도단체 내지 포교단체의 구성 및 활용, 신도기본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포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세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중심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50%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수도권을 버려두고 포교를 운운한다는 것은 전법을 포기하겠다는 표현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산업화의 가속화와 전통사회구조의 붕괴는 한국 종교현실을 다변화시켰다. 이제 불교는 우리 사회의 절대 종교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첨언하자면 이번 조사가 보다 많은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계층, 믿는 이유, 기대하는 사찰의 역할, 사찰의 문제점, 청소년포교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역시 중요한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변화를 직시하고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다. 불자의 사명은 바로 전법이라 할 수 있기에 수도권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최종방침 유보와 공사강행의 입장을 밝혀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 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와 관련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환경부도 10일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부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 건교부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 연장해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건교부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구간 공사도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런 와중에 반대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관련 현장에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2년이 넘는 각계의 반대 목소리들이 공사현장 굴삭기 소리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

묻고 싶다. 정부는 북한산을 두 번 죽이려 하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다. 지금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번복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인 '백지화'란 전제를 걸어 놓고 어떤 수순과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이다. 이 점을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크게 뉘우쳐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신도등록 인터넷으로

조계종 포교원 사이트개발…시험거쳐 6월부터

사찰과 직접연결, 온라인 포교 발판

조계종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도등록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지난해 12월 30일 인터넷 개발업체인 다나아이앤씨에 신도등록 사이트 개발을 공식 의뢰했다. 오는 3월까지 신도등록 인터넷 사이트 개발을 완료하고 4~5월 시범사찰의 시험 가동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신도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신도등록 추진 배경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젊은 층 신도를 비롯해 불자들의 신도 등록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96년부터 8년째 신도등록을 시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등록률이 저조해 추진방법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이용인구가 20~30대에서 40~50대로 확산된 사회적 흐름과 최근 30~40대 신도등록률이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조계종 신도등록은 사찰 접수에서부터 조계종 포교원 등록, 교무금 납부, 최종 신도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인터넷 신도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복잡한 신도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서신교환 등 2~3주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여 1주일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개별 사찰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뤄져 온라인을 통한 포교행정 처리체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등 포교기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 외에도 포교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포교마인드 개선과 개별 사찰의 현실적인 포교역량이 강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규 신도과장은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올해 50개 사찰을 목표로 인터넷 등록을 착실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 대' 만평
김 영 민



수행환경 수호·재활용운동 추진

조계종 포교사단, 자연보호 실천위 구성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2일 서울 필동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기존의 환경특별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킨 자연보호실천위는 앞으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자연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찰환경 보존 운동을 상시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재활용 보급 및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의 캠페인과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자연보호실천위를 결성, 환경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보호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사찰 가운데 어린이, 학생, 청년 법회를 보는 곳이 전체의 1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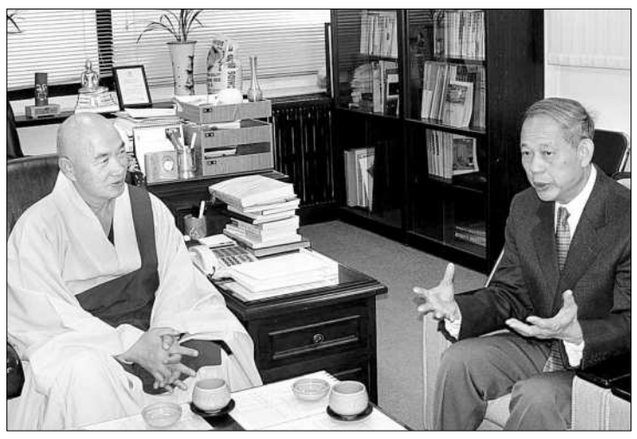
청소년 포교 활성화 시급

본말사 780곳 중 '법회' 운영 사찰
어린이 14.7, 학생 13.3, 청년 11.9%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 황찬익 포교과장이 13~16일 열린 전국 교법사단 연수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종단의 청소년 포교 정책' 자료에 담겨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이 조계종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응답한 780개 사찰 가운데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130개로 16.7%, 학생법회는 105개 사찰로 13.3%, 청년법회는 93개 사찰로 11.9%에 불과했다.

학생법회의 경우 법회를 개설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46.3%가 '지역 여건으로 대상인 청소년 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7.8%가 '법회를 이끌 지도교사 부족', 10.5%가 '학생들의 입시부담', 5.7%가 '사찰 재정상의 부담'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회 법회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7.6%가 '있다'라고 응답해 대다수의 사찰에서 학생법회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교지표조사 결과는 내달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태국노동자 올 봉축행사 동참

솜분 산기암부트 주한 태국대사는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예방하고 올해 봉축행사 때 대사관과 2만여 태국노동자들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영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태국의 날'을 제정하고 태국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2일 봉은사 감사 조사특위·호법부 합동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호법부와 함께 봉은사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봉은사 특위 소위원회는 1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특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호법부와 함께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 8일 봉은사에 1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봉은사 문제는 23일부터 열릴 임시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권노갑 이사 후임 황창규·조영록 교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3일 동국학원 이사직을 사퇴한 권노갑씨 후임이사에 황창규(68·경영학부 교수 역임), 조영록(67·사학과 교수 역임) 동국대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에 따라 종립학교 이사와 감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복수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누가 될까?

종하·법장스님 출마 유력

소장파 종회의원 중심 '새 인물론' 확산

▲차기 총무원장 누가 뛰고 있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현재로서는 종하(서울 관음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 두 스님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두 스님은 정대스님의 거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선거에 대비해왔다.

종하스님은 중앙종회의원 9선의 최다선 경력과 종회의장, 불교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종회 내 지지세를 다지면서 여러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표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10여 년간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아 온 법장스님은 오래전부터 원로의원과 선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공을 들여왔으며,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사람 외에 최근 들어서는 정련스님(전 포교원장)이 부각되면서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종하스님과 정련스님이 같은 범어문중 출신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교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선거구도가 잡히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열흘 전에 이뤄지는 후보등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문중과 종회 내 계파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구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나 구태의연한 종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참신하고 수행자다운 비정치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새 인물론'이 소장파 종회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사회 분위기도 젊고 개혁적으로 흘러가는데, 불교도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류가 대세를 이룰 경우 양자구도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다.

▲총무원장 선거는 언제?

조계종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 제28조에는 '총무원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조항만으로 본다면 2월 15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2조에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월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되는 240명의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사퇴시기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달 24일 사퇴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던 것과 달리 시기를 앞당긴 것은 종회 내 반대 계파 종회의원들이 임시종회를 소집하고, 또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이상 총무원장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져오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홀가분하게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정대스님이 15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가지 약속' 잘 마무리 돼 사회활동 소홀 아쉬움 남아"

조계종 총무원장 사임한 정대스님



"남은 임기까지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유감스럽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후임 총무원장 스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16일 총무원 청사를 떠나 동국대로 향한 정대스님의 얼굴에는 말 그대로 시원섭섭한 표정이 역력했다. 종단안정과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 총본산 성역화 불사 착공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만족감도 있지만, 스스로 밝혔듯이 성역화 불사 완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취임 초 종단 안정을 이루는 것과 함께 총무원 새청사를 건립하고, 또 박수를 받고 떠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불사를 이유로 사회활동에 소홀했던 데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후임 총무원장의 선거 일정이 동안거 기간과 중복되는 것은 수행종단의 면모에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스님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염려돼 즉각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불협화음만 없으면 우리 종단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종단안정을 거듭 강조한 정대스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따르겠지만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집행부와 협의 업무 공백 없게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용스님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집행부 스님들과 협의해 공백없이 총무원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대스님의 총무원장 사퇴에 따라 다음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총무원을 이끌게 된 총무부장 선용스님은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하리라 믿으며, 총무원은 행정적인 지원에 충실하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무원장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안정과 화합을 이룰수 있는 분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동국·승가대 예비승 수행관 입방 의무화

조계종 교육원, 3월부터 학사관리 강화

오는 3월부터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예비승(사미 · 사미니)들은 의무적으로 수행관에 들어가야 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2년 이상 재학중 출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4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교육 연한을 채워야만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같은 예비승 학사관리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등 예비승의 교육 및 계율 강화에 나선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으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들의 면학풍토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예비승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3월부터 수행관에 입방하지 않는 예비승은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및 구족계 수계자격을 박탈당하는 한편, 종비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중 출가한 사람도 4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면 불교대학 2학년 재학중 출가한 사람의 경우는 동국대 3, 4학년 2년의 기간만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동국대를 졸업한 후 강원이나 중앙승가대에서 2년간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3학년에 출가했더라도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강원 학인들에 대한 학적 변동도 엄격해져, 전학 및 편입학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한명우 기자

남북불교교류 조직강화 통일기금조성

민추본, 올 3대사업 방향 제시

민추본이 남북불교 교류사업과 통일교육 진행 및 회원조직사업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통일기금 조성을 올해 사업추진 3대 방향으로 설정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는 8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2003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교계 지도자 방북 △지속적인 대북지원 △통일교육 진행 및 회원조직화 등을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민추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 등 100여 사부대중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본부장 정련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평화의 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추본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하례회 2부 행사로 열린 '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북핵 문제' 토론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의 극한적 입장을 막아내고 한미 공조를 통해 미국의 강경대응도 막아내는 완충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북핵문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완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일차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 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독거노인·소년가장 쌀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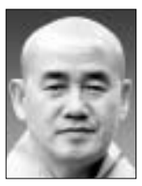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0일 서대문구 홍은3동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 20㎏ 70가마를 보시했다.

일주문



발전기금마련 독창회 개최

시명 울산 극락사 주지는 28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발전기금마련 독창회를 연다.



1월 다보법회 봉행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1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02)703-0108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6일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했다.



구미 장애인복지관장 부임

시용 천태종복지재단 정책실장(구미 금룡사 주지)은 최근 구미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부임했다.



장기기증 위한 법회 봉행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2월 10일 영남불교대학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25일 태백산 눈꽃산행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9회 산행모임 '태백산 눈꽃산행'을 한다. 019-426-7980



소백산 심설 산행

노종백 한국불교산악회장은 19일 올해 첫 정기모임을 갖고 경북 영주 소백산 심설 산행을 실시했다.



전북 불교대서 동계특강

혜거 서울 금강선원장은 25일 오후 3시 전북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동계특강을 연다. 063-226-7878



'나눔의 집' 신임 원장에

원행 무주 안국사 주지는 10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퇴촌 '나눔의 집' 원장에 선출됐다.



이웃돕기 하루찻집 열어

박수관 범어사신도회장은 22일 부산 서면 하나방에서 자비의 손길 이웃돕기 하루찻집을 연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②

강수균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올 세계교수불자대회 성공 최선
불자교수 대학생 연계 포교 추진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교수불자대회를 성공리에 회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강수균 교수(대구대 언어치료학과)의 새해 첫 소망이다. 1988년 창립한 교수 신행단체인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강수균 교수는 지난해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한국불자교수대회에 참가, 세계불자교수대회를 올 8월 법륜불자교수회에서 주관하여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외국에 가보면 티베트 등 동남아 스님들은 세계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강수균 교수는 세계불자교수대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우리 불자교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수균 교수는 또 세계교수불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해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 크지만 이번 대회를 여법하게 마무리해 한국불교 저력을 세계 여러 나라의 불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얼마 전 대학생불교연합회의 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애감이 들었다는 강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한문으로 된 어려운 경전과 지도법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불자교수와 대학생불자의 연결고리를 마련해 침체돼 가는 대학생 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륜불자교수회 활동 외에도 매주 화요일에 화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화화회'에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강 교수는 정년퇴임까지 완역을 목표로 '대반열반경'의 한글 번역을 맡고 있다.

정년 때까지 '열반경' 완역 목표

강 교수는 정년퇴임 후에도 불교에 바탕을 둔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불교문화 포교사 역할 다할 것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경일헌 회장



"박물관 자원봉사를 통해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포교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1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한 경일헌(58.백암) 회장은 박물관 자원봉사 경력 2년 6개월의 자원봉사 예찬론자다. "불교공부 하다보니 철이 들어 아내와 함께 사회를 위해 도움 줄 일을 찾게 된 것"이 경 회장이 밝히는 자원봉사 시작의 이유다. 부인인 김선자 씨도 봉사회 회원이자 든든한 후원자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방대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경 회장은 "6개월간의 교육으로는 부족해 박물관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원들의 자질을 자랑했다. 경 회장은 "문화에 대한 소양은 어릴 때부터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자원봉사회 회원 자녀들부터 문화답사나 관람 등에 참여시켜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열어봤으면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도 박물관 봉사에 국한되지 않고 도량 청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 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초발심 자세로 청소년 포교

전국교법사단 김형중 신임단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법사단의 발전과 청소년 포교를 위해 초발심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3일~16일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제35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정기총회에서 신임 단장으로 선임된 명성여고 김형중(48) 교법사는 "그 어느해보다 노력하는 교법사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과목이 생김에 따라 전통문화, 심성교육, 문화유산교육 등을 중심으로 불교와 연관된 보조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빠른 시일내에 보조교재 개발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교의 근본교리 등을 청소년들에 맞게 현대적 언어로 해석해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 소장을 맡으며 청소년 교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 단장은 교법사단이 파라미타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매진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 교법사단지를 만들어 교법사들의 활동과 교법사단의 역사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회원사별 간사 중심체제로"

언론사 불자련 김진평 신임회장



"내세울 만큼 부지런한 신행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6일 제2대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KBS 기술본부 김진평 국장<57, 사진>은 올 상반기 내에 회원 언론사 확대를 위해 연합회 사업방향설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를 회원사별 간사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회칙 등의 기본 조직이 완비 되는대로 정기법회, 수계법회, 성지순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근직 회원의 법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회보 발간, 가정 방문 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원주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은 11일 원주 구룡사에서 제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원행스님의 입학 허가 선언 및 인사, 강만길 상지대 총장의 특별강연 '한반도의 평화통일', 조광희 원주교육장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입학생 74명은 1년 동안 최봉수 박사의 불교교리, 정병조 박사의 불교역사, 김응철 박사의 불교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삼존불 · 16나한 봉안식 봉행

조동종 묵조정사(주지 행수)는 14일 삼존불과 16나한 봉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심월, 교육원장 대은, 포교원장 법공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총무부장 덕성스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회에서 "종지 종풍을 주야 정진해 묵조선풍을 이 땅에 진작시켜 불국토를 이루자"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 집전대회 개최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 2회 조계사청년회 집전대회'를 개최했다. 정근, 예불 분야 실력을 겨룬 단체전에는 청년회 지혜부와 선정부가 각각 1등 장엄상과 2등 우수상으로 뽑혔고, 반야심경 봉독과 예불 등을 함께 평가한 개인전에는 이상호, 백호정, 전경문 회원이 1등 맑은소리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오대산 눈꽃으로 화현한 인허선사

평생 무소유와 하심 실천



◇인허스님 다비식이 15일 월정사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범

월정사 회주 인허당 택호선사가 13일 오대산에 휘날리는 눈꽃처럼 아름답게 회향했다.

80평생 소임을 맡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간경과 기도 수행으로 일관해온 인허선사는 한국불교의 큰 산맥인 한암스님의 법을 이어 무소유와 하심을 실천해왔다.

인허스님은 입적 전날 밤 저녁예불에 참석한 뒤 불자들과 문답을 나누고, 몇 가지 밖에 안되는 짐을 박스에 담아 정리해 놨다. 스님은 책상에 명정 글씨까지 직접 써놓은 뒤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상좌에게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평생 무소유와 근검절약으로 일관했던 스님은 보시금도 모두 그대로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놔 문도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두고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 등은 큰스님의 여법한 '조사열반'을 되새겼다.

지관스님은 "출가자로서 자취를 감추고 일생을 수행에 전념해온 것은 수행자로서 가장 뜻 깊은 일"이라며 "인허스님의 한 평생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대스님도 "무소유와 하심의 생활자세를 몸소 실천해 후학들의 모범이셨다"며 "큰스님의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애도했다.

현해스님은 "항상 법당에 석불처럼 앉아 계시던 스님. 항상 온화한 말씀으로 선문답해주시고 후학을 경책하다 열반에 드시니 조사열반이 따로 없다"며 "스님의 뜻을 받들어 문중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항상 겸손함을 갖춘 오대산의 자비보살의 삶을 살아온 인허스님. 스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신도들과 수좌들을 기꺼이 맞으며, 늘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해왔다.

인허 스님은 "무심히 정진하다 보면 무색 무취 무미의 도를 체득할 수 있다"며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음(知音)' 자리는 언설로는 말할 수 없기에 '구업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사회가 금수세상으로 갈수록 부처님 도량만은 중생들의 의지처와 삶의 올바른 지향점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후학들에게 열심히 정진하라고 경책했다.

월정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진의 원력보살' 행장

87세 고령에도 새벽예불·간경·참선

인허당 택호선사는 1916년 6월 15일 전북 김제시 만경면 대동리 257번지에서 5남 3녀중 넷째로 출생했다. 스님은 속가의 둘째 형인 탄허 스님이 출가한 2년 뒤인 36년 오대산 상원사 방한암 스님을 친견하고 발심하여 입산, 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9년 월정사 강원을 수료한 뒤 45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51년 한암 스님이 열반할 때까지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정진했다.

83년 탄허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 그늘에서 묵묵히 참선, 독경, 염불의 정진을 계속해 온 인허 스님은 95년 한암문도회 대표, 96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돼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아왔다. 특히 근년에는 기도정진에 전념해 견처를 얻고, 근검 절약과 정진의 원력으로 사부대중의 사표가 되었다.

스님은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입적하는 날까지 매일 새벽 예불에 이은 독경, 참선을 멈추지 않았다.

케이블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용화사, 시공업체 상대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10일자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시공업체인 (주)효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용화사는 "통영시가 케이블카 선로설치를 위해 무단 사용하려는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산189임야 222,248㎡의 소유자이자 전통사찰"이라고 밝히고 "이 토지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선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의 동의(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를 밟은 바 없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케이블카 실제 선로 길이는 2km가 넘기 때문에 별도의 환영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효성은 미륵산 케이블카와 같은 2선식 사업실적이 없고, 하부구동방식이 아닌 상부구동방식을 채택한 실시설계를 제출, 입찰조건에 부합되는 않았는데도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며 선정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지리산댐 건설 반대 20단체, 대책위구성

남원 산내면번영회를 비롯 20여개 단체가 지리산댐(마천댐)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리산댐 건설추진계획 백지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책위'는 10일 산내면 토비스 콘도 연회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함양군의 댐 건설 억지 주장으로 인한 지역 내 주민간의 불화와 반목 · 대립은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댐 건설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등 100여명이 모인 출범식에서 정인철 산내면 번영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댐은 이주민 뿐 아니라 주변마을과 지리산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위는 종교와 지역, 이념을 넘어 개인 및 여러 단체의 연대를 통해 백지화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재 16일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故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故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가 고인의 영정 앞에 헌다(獻茶)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불자 노고 찬탄해요"

달라이라마, 印 JTS 방문 법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11일 인도 최극빈지역 중 하나인 '둥게스와리(Dhongeshwari)' 지역에서 한국인 불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개발구호사업장인 JTS(이사장 법륜)의 '수자타 아카데미(Sujata Academy)'를 방문, 법회를 열었다.

인도 JTS 법당인 전정각사(前正覺寺)에서 참배를 마친 달라이 라마는 1주기를 맞아 새로이 조성된 고 설성봉 거사의 추모비에 헌화한 후 보리수를 기념식수했다. 이어 이 날 새로 개원된 '수자타 기술학교' 교정에서 완공을 기념하는 초석을 제막했으며, 3,000여 인도, 한국, 티베트의 사부대중들을 위해 법문을 했다.

달라이 라마는 법문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첫관문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인도의 오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의 진실한 후원 역할을 해온 인도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특히 한국 불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비심을 베풀어 이 곳에 불법이 융성하고 있으니 복으로써 찬탄한다"고 법문했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달라이 라마가 인도 JTS 수자타 기술학교 완공기념 초석제막식에 참석했다.

동국대 일반·편입학 지원 총 8,231명…8.3대 1

동국대 2003학년도 일반,학사 편입학 전형결과 987명 모집에 모두 8천231명이 지원, 평균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주캠퍼스 한의학과는 5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 62.8대 1의 경쟁률, 의학과는 5명 모집에 180명이 지원 3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는 편입지원자에 대해서 서울캠퍼스는 22일, 경주캠퍼스는 27일 필답, 면접, 실기고사를 각각 실시하고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인터넷 포교방송 부다TV 20일 오픈

불교전문 인터넷 포교방송 부다TV(www.buddhatv.com)가 20일 문을 연다.

불교 초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다TV는 설법과 포교, 문화, 교육 등 4개 채널을 갖추고 있다.

설법채널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찰 법회나 불교행사의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포교채널에서는 찬불가 뮤직비디오와 각 절의 불사 진행과정과 의의를 들어보는 불사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채널에서는 영화전문 프로그램 부다시네, 청소년 음악프로그램 락앤락, 어린이 구연동화 프로그램 선재마을 등을, 교육채널에서는 초심자와 중급자를 위한 불교강좌를 선보인다.

여수령 기자

국립공원 기본법 제정을 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국립공원 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법' 수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립공원 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법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법 수립을 요구했다.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은 "공원기본계획이 국립공원 보전의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규와 운영, 관리체계, 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이 수립되면 북한산관통도로 등 국립공원 내 도로 설치시 적극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천태·관음·원효 4종단 참여

수계의식 첫 實修·토론

파계사 영산율원 23~25일 습의산림개최

불교 각 종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계의식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은 23~25일 3일간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원효종 등 4개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의식 습의산림'을 개최한다.

여러 종단들이 함께 모여 수계의식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수계의식 습의산림은 조계종의 수계의식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실수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습의산림에는 수계의식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스님들이 참가한다.

습의산림은 첫날인 23일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의 산림안내를 시작으로 식당작법 및 계율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종진스님(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과 철우스님의 '수계의범'에 대한 강의와 수계의식 및 삼보일배와 관련한 VTR 시청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각 종단 참가자들이 각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계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3시간에 걸쳐 수계의식을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계의식은 승가의 계율을 받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으로, 스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다. 조계종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현재의 수계의식을 정착시켜 왔으며, 태고종도 오래 전부터 전통방식에 따라 수계의식을 봉행해왔다. 그러나 수계의식이 저마다 다르고, 일부 종단은 여법한 수계의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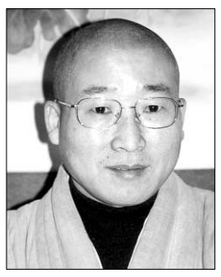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수계의식 습의산림은 불교 종단들에게 수계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여법한 수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습의산림을 개최하는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은 "수계의식과 습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승가의 지계풍토 진작과도 맞물려 있다"며 "여법한 수계의식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데 습의산림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누면 열매 반드시 되돌아 와"

자비의 쌀 · 장학금 16년째 보시 법경스님



"자비의 종자를 함께 나누고 베풀면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13일 서울 성동구청 사회복지과에는 20kg 쌀 60포대가 가득 쌓였다. 관내 10개동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이 쌀은 성수2가 1동 능인정사 법경스님(사진)이 보내온 자비의 쌀이다.

87년부터 16년째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자비의 쌀과 장학금을 전달해 온 법경스님. 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외롭게 명절을 보낼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법경스님은 건물 지하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를 실천해 왔다. 포교당을 처음 열었던 86년 당시 뚝섬 인근에 절이라곤 전혀 없었다. 판자촌이 즐비한 소외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경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포교당을 내면서 그들에게 다가섰다. 연탄을 가져다주었고, 얼마의 시주금이 쌓이면 또 쌀을 가져다 주었다.

"날이 춥다고 마음까지 추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궁색하더라도 부처님 법이 어떤 가르침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포교당을 낼 때 이미 각오했었지요."

능인정사 불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변변치 못한 절 살림은 제쳐두고 딴 데만 퍼주는 스님에게 투정까지 부린다. 그때마다 법경스님은 불법을 펼치는 데에는 차별도, 분별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찰이 많이 늘어야겠지요. 그럴때 불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박봉영 기자

광주사암련 회장 현지스님 취임

승보회, 중·고·대학생 10명에 장학금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제15대 회장에 현지스님(원효사 주지 · 사진)이 취임했다. 9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법회에는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비롯해 광민스님(무각사), 김두원 광주불교신도회장, 이상진 광주불교방송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회장 현지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낙후된 호남지역과 광주지역 불교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소속 종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논의함으로써 화합된 지역불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역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승보회(회장 광민) 주관으로 지역 중 · 고 · 대학생 10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화종은 6일 남양주 총무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총화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6일 남양주 수진사내 총무원 회의실에서 계미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동광스님을 비롯해 간부 및 중진스님 8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사바의 중생을 위해 인욕보시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게 시 판

알림 ▲서울 궁동복지관은 23, 30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또 25일 오전 10시는 협동화 그리기 행사를 연다. (02)2613-9367

모집 ▲청도 다람어린이집은 생후 18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한다. (054)373-6675

▲영주 장애인복지관은 30일까지 다운증후군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집단 운동치료 접수를 받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 (054)633-6415

▲과천복지관은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언어치료사를 모집한다. 접수는 2월 19일까지. (02)507-6319

▲제천장애인복지관은 25일까지 장애인복지학과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043)652-0900~3

▲서울 능인복지관은 25일까지 계약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한다. (02)571-2988

▲성북노인복지관은 지팡이, 워커, 휠체어 등 노인보조용품을 1개월간 무료로 대여한다. 거동이 불편한 자와 장애인들에게는 전동스쿠터도 빌려준다. (02)929-7950

▲원주 명륜복지관은 2월 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문화회관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033)762-8131

상담 ▲속초복지관은 25일 오후 3시(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무료법률 상담 및 가정 상담 행사를 연다. (033)633-8761

▲부산 용호복지관은 매월 1, 2, 3주 화요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가족문제상담실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 또한 수시로 소비자 문제 상담도 하고 있다. (051)628-6737

이전 ▲백보한의원은 최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3 지원빌딩 2층으로 한의원을 이전했다. (02)723-2337

인사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부 종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를 결의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박희승(기획실 · 차장), 진준호(호법부 · 과장), 공승관(재무부 · 계장), 이민우(기획실 · 계장), 전인동(포교부 · 계정), 류창무(종회사무처 · 계장), 조혜림(불학연구소 · 주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종회 소집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지하)는 23~27일 5일간의 일정으로 불교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전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종광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8명의 발의로 소집된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법 등 종법개정안과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등을 다룰 예정이다.

태고종

충남종무원 정기총회

태고종 충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정담)은 27일 오전 11시 홍성 의창회관에서 2003년 충남교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연말결산과 시무식을 겸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안건은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2003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의, 2003년 사업계획 승인건 등이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충남교구의 90여개 사찰 가운데 50여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동문회장 휴완스님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제주동문회는 13일 제주종무원 법당에서 제6대 회장 휴완스님(북제주 덕림사) 취임법회를 열었다. 동방불교대 제주동문회는 이날 총무부장 지화스님, 재무부장 성덕스님, 기획부장 대현스님, 홍보부장 정법스님, 조직부장 성근스님, 섭외부장 성원스님 등 새 임원진도 구성했다.

천태종

12일 동안거 해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2일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종단 소속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동안거를 해제했다. 1500여 대중이 참여한 이번 동안거는 지난해 12월 13일 입재해 1개월간 관음기도, 염불 등 용맹정진으로 진행됐다.

진각종

계미년 첫 49일 불공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20일 계미년 첫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신교도들의 일념 정진 중 하나로 매년 3차례 열리는 49일 불공은 150여 전국 심인당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불공은 3월 9일 회향한다.

관음종

22일 정기 중앙종회 개최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륜)는 22일 인천 흥륜사에서 정기중앙종회를 연다. 이번 종회에서는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종헌종법 개정안 심의와 관음종총본산 묘각사 낙성에 관한 건이 다뤄진다.

삼론종

교육·전산화 성취 발원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승)은 13일 남양주 한 음식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혜승 총무원장, 진봉 교육원장 등 1백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석파스님은 교육원장 진봉스님이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종도교육과 전산화를 원만 성취하여 계미년을 종단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 조동종

원효사 불우이웃 돕기



한국불교조동종 총본산 원효사(주지 학봉)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관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소면국수 30박스와 현금 1백만원을 효창동 동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 및 성금은 동사무소 주관으로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100명에게 각각 전달된다.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건물관리는 양호 단청은 조잡 완벽한 복원 되도록 최선"

북사찰 단청실태 보고온 김성룡씨



지난 70년 초반 혜각스님으로부터 단청 기술을 전수받고, 이후 30여년간 오직 전통사찰 단청 보존이라는 한 우물만을 파온 장인 김성룡(51 · 사진) 씨.

지난해 11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 사찰의 단청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차 북한을 방문한 김 씨는 조잡한 단청과는 달리, 복원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3월부터 이뤄질 북한 사찰에 대한 단청지원과 기술전수를 맡았다. 평양 법운암과 사리원 성불사가 대상 사찰이다. 북한 단청지원을 앞두고 김 씨는 한껏 부풀어 있다. 자신의 손에 의해 북 사찰이 전통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김 씨는 "이번 북한 방문당시 안국사 등 9개 사찰을 조사한 결과 상원암 칠성각과 월정사의 단청이 비교적 원형을 잘 보전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에서 수집한 자료와 한국의 단청자료 등을 비교분석하며 보다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청 지원을 요구한 것도 남한불교와의 교류 차원도 있지만 사찰 복원을 통해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북한불교와 사찰이 남쪽에 자세히 알려지고, 남북한 불교도가 함께 북한 곳곳의 사찰에서 법회를 여는 날도 기대해 봅니다."

영천=박원구 기자

오늘의 북한불교

南風타고 변화 물결 넘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오는 3월부터 북한지역 사찰에 대한 단청불사를 지원하기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함에 따라 북한 불교와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사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능을 하며, 이 곳 스님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남한 불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으나 전후에 다시 복구된 금강산 표훈사 전경. 표훈사는 금강산 4대 사찰중 하나로 금강산의 관광명소다.



◇북한 국보유적 34호인 안국사의 공포는 남한사찰과 달리 양옆으로 날개가 붙어있다.



◇남한의 단청기술자들이 복원할 사리원 성불사 극락전.



◇묘향산 보현사 스님들과 평불협회장 법타스님(오른쪽 끝). 북한스님들은 삭발을 하고, 검은색 장삼, 붉은가사를 수했다.

사찰현황

전국 60여곳…해방직후의 10% 100여년 단청안돼 훼손 심각

광법사, 용화사, 법운암, 정릉사 등 평양의 4곳을 비롯해 전국에 약 60곳이 있다. 평안도지역에 묘향산 보현사(국보 유적 22호), 심원사(국보 21호), 안국사 등 20여 사찰이 있고, 황해도에 성불사(국보 31호), 패엽사(보물 27호), 심원사(국보유적 33호) 등 15곳이 넘는 사찰이 남아 있다. 함경도 지역에도 양천사, 용흥사, 가루사, 쌍계사 등 10여개 사찰이 있다. 이밖에 강원도와 양강도, 경기도에 흩어져 있다.

현존 사찰수는 해방 직후 540여 곳의 10%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폭격이나 방화로 훼손돼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능면에 있어서도 북한의 사찰은 종교적인 기도, 수행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명승지로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단청 상태는 새로 복구된 광법사, 정릉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이 100여년간 단청이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방문단 일행으로 지난해 11~12월 북한을 다녀온 단청장 김성룡 씨는 "사찰 복원과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단청은 너무 조잡해 마치 초등학생이 흉내만 낸 듯한 수준이라 제대로 된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과 신도

스님 300여명…비구니는 없어 의식때 검은색 장삼·붉은 가사

북한에는 현재 300여명의 스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결혼을 했고, 비구니는 전혀 없으며, 젊은 승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평상시 양복을 입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신지만 의식을 집전할 때에는 검은색 장삼 위에 붉은 색 대가사를 수한다.

스님들의 역할은 수행과 교화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 · 관리하고 내외 관광객들에게 사찰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다만, 스님들의 법계는 선덕, 중덕, 대덕, 선사 등 전통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 수는 약 1만명 정도라고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밝히고 있다. 1950년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 수록된 북조선불교총연맹 가입 신도 37만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불교의식

조석예불 전통의식 유지 정기법회는 열리지 않아

북한불교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회의식은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 열반절 등 불교의 3대 명절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최근 몇년동안 조국통일 기원법회, 남 · 북 합동법회 등이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남한 사찰에서 흔히 열리는 초하루법회, 관음재일법회, 지장재일법회 등은 열리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의식 집전은 석문의범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조석예불과 사시불공 등 전통적인 의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질이 좋은 곡식을 불전에 올리는 사하촌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89년 처음 북한에 갔을 때 보현사에서 짐바브웨 부통령 일행을 만나, 부전 소임을 맡은 스님과 함께 축원을 해주었다"면서 "남쪽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화물결

호칭 '중선생'에서 '스님'으로 단청지원 요청 등 변화 뚜렷

북한불교는 남 · 북 불교교류가 시작된 89년 이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스님이라는 호칭이 되살아났고, 삭발하는 스님이 생겨났다. 묘향산 보현사 10명의 스님 중 절반이 삭발한 스님이고 '중선생'이라는 호칭도 스님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남쪽 스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80년대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법회의식도 삼귀의, 사홍서원 등 남에서 만든 한글노래를 쓰고 있다.

92년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반동'이라는 표현이 따랐던 종교 관련 단어가 완전히 삭제됐다. 일례로 '부처'라는 단어가 81년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우상'으로 풀이가 돼 있었으나, <조선말대사전>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의 요청에 의해 최근 단청지원으로 이어진 점은 북한불교의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 단청지원을 계기로 남 · 북 불교교류의 전망은 한 층 밝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89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온 바 있는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식량지원만을 요구해 왔던 조선불교도연맹이 단청지원을 요청해 온 것만 보더라도 북한불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

<사진제공=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사찰건축, 이 시대 불교정신 담아야

해인사 새 도량건립 계기로 본 사찰건축 현대화

지난해 12월 26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세민 스님)는 한국 건축계에 거대한 화두 하나를 던졌다.

해인사는 이날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이라고 할 만한 신행문화 도량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이 있는 기존의 해인사는 스님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 불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성보박물관이 있는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일반불자들이 법회와 기도, 염불, 예불, 참선, 수행, 취침을 할 수 있는 도량을 새로 건립한다는 계획. 이어 지난달 28일 열린 설계경기 공모에는 80여 개 팀에서 참가신청을 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공사비가 200~3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유서 깊은 사찰에 절을 새로 더한다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새 시대에 맞는 불교사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해인사 측의 설명처럼 신행문화 도량 건립은 현대적 사찰 건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찰 기능 변화 건축적으로 수용해야

현대적 사찰 건축에 대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건축적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서울 능인선원, 충북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경기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동국대 대각전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건축가 김개천(이도건축 대표)씨가 설계한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은 사찰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해 사찰 건축 현대화의 한 모델이 되고 있다. 절 전체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한 두 채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거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외관은 전통 한옥 형태로 법당 등을 만드는 사례는 더 많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에서 두드러지는데, 김개천 씨는 "불교의 기능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통적 불교가 의식을 중시했다면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들은 신행과 포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고, 기능이 바뀌니까 건축구조와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 한옥으로 지으면 평당 건축비가 1500만 원 가량 드는 데 비해 300~500만 원선이면 충분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옛 형식 고집, 실패 많아

그러나 사찰 건축의 현대적 접근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사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하고 건축미학적으로도 우수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건축 자재만 현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 수행, 예배, 포교라는 사찰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건축 양식적으로도 우수한 도심 사찰의 예를 찾아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해인사 신행문화 도량 건립을 계기로 '사찰 건축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사진은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충북 담양 정토사 법당.

옛 형식 집착 실패한 건물 많아
수행·예불·포교기능 함께 수용
건축가와 충분한 대화 필요

사찰 건축의 현대적인 시도에서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것은 불교계가 이 문제에 눈뜬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지만 옛날의 형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는 "대부분 스님들이 생각하는 '현대화'란 한옥 기와집을 약간 변형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도심형 사찰이나 현대 건축을 시도한 절들은 현대적인 재료에 지붕이나 기와를 올리는 '절충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개천 씨는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좋은 건축가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흔히들 설계 비용 때문에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찰의 기능이나 어떤 정신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건축가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조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졸속의 한 원인이다.

▲불교적 전통 · 현대적 조형 관념 조화 필요

그렇다면 사찰 건축의 현대화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까? 홍광표 교수는 동국대 대각전을 예로 들며 "현대 사찰 건축의 원형은 전통적 불교 교리에서 찾되 단순한 복제나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다 보니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입과정이 긴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 문화관의 1층 로비를 막아 지은 대각전은 땅이 좁은 도심의 절답게 이를 건물 내부로 끌어들여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일주문, 사천왕문을 지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홍 교수는 "불교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은 건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 실내 장식, 불교 미술 등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개천 씨는 "김대성의 경우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기에 앞서 당시 고승들을 찾아가 화엄사상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다"며 "철학 없이 좋은 건물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불교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적 전통과 현대적 조형 관념을 함께 담아내는 일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능인선원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면서도 불교적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냈느냐, 혹은 건축미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받곤 한다. 홍광표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 사찰 건축의 전범이 될 건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실험 과정이니 만큼 스님들이 실험적 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개천 씨는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며 "좋은 사찰 건물은 당연히 이 시대의 불교 정신이 구현돼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전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봉렬 교수는 "석굴암의 예를 보자. 석굴암의 구조기법이나 공간형식은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최첨단 하이테크 건축이었다. 역사상 그러한 예가 없는 이질적이며 이국적인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석굴암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불교건축이요, 한국의 전통이 되었다. 석굴암의 건축가인 김대성이 적당히 과거의 전통을 받아들여 그렇고 그런 기와집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겠는가? 석굴암은 오늘도 '전통은 늘 새로운 시도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오승민
포천 목련의 집 총무

치매할머니들의 예술작품

'마지막 가시는 길 책임' 자부심
오늘도 장판위 수묵화? 닦기에

"우와~, 그림 죽이네!" 아침마다 마음을 조이며 방문을 열 때 나오는 탄성이다. 어느 동양화가가 방바닥 장판을 화선지 삼아 검디검은 먹물로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 할머니들이 당신의 배설물로 만들어 놓으신 오늘의 작품이다.

함박웃음 지으시며 그리곤 하시는 말씀, "삼촌! 삼촌도 이 고구마 먹을껴?"

아직도 마음이 부족해서 때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세제에 적신 수세미로 열심히 장판을 닦으면서 생각한다. 어려운 시절에 남들 다니기 힘든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들 · 딸 기르셨던 기쁨, 장성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신 행복한 시절, 저 분들도 분명 있으셨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치매라는 몹쓸 질환으로 그 사랑하던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쓸쓸히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의 짜증도 깨끗해진 장판과 함께 사라진다.

매일 아침.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옷 겉옷은 물론 덮으시던 이불까지 모두 젖을 정도로 소변양이 엄청나게 많으신 자칭 목련의 집 예쁜이 김 할머니, 밤샘 작업(?)으로 방안 장판을 모두 찢어놓으시는 말썽쟁이 이 할머니, 주무시기 전에 기저귀를 채워드렸는데도 아침에 보면 기저귀가 온데간데 없어져, 자세히 살펴보면, 기저귀를 다 드셔버리시는 포식가 박 할머니, 소변 한번 보시는데 30여분의 실랑이 끝에 겨우 보시는 부끄럼쟁이 오 할머니…. 일반인들에게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하는 일들이 이 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내가 근무하는 이곳. 여기 목련의 집은 오갈 데 없는 중풍 ·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조그마한 복지시설이다.

나의 외조모께서는 13년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다 1998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홀로 할머니를 평생 보살펴드리다 그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줄곧 중풍 ·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살게 됐고, 그런 지가 올해로 벌써 9년째이다.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겠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작은 의료시설과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훗날 이룩하는 것으로 원을 삼고,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 지 이제 4년째에 접어든다. 처음엔 심적 부담감으로 거부감마저 들었지만 지금은 나의 외조모께서 열어준 길이라 생각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왕 다진 마음이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대학원 사회복지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도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비인가 시설이었던 목련의 집을 2002년 8월에 있었던 전국미신고 시설 등록기간에 맞추어 지금은 신고시설로 전환했다.

신고만 하면 어느 정도는 국가적 혜택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아직도 하루에 수 십장씩 소모되는 기저귀며 생필품, 약값, 겨울철 난방비까지 여러 가지 운영난과 일손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여분의 치매중풍어르신들을 단 둘이서 돌봐드리는 것도 힘에 부치고 또한 운영비로 여러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책임지고 있다는 작은 자부심으로 오늘도 장판에 그려진 수묵화를 열심히 닦고 있다.


연합법회


순례법회


테마법회


아침·점심법회

직장불자회 법회 '각양각색'

지역·직종따라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전국의 직장 · 직능불자회는 대략 500여 곳. 제각기 규모, 지역, 근무 환경, 직업 특성 등에 따른 이들 불자회의 법회 형식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동일 지역 연합법회,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 사암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테마' 중심의 이벤트법회 등 다양하다. 이들 직장불자회가 어떻게 법회를 보고 있는지, 그 법회 형식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뭉치는 법회' 늘고 있다**= '합동' 또는 '연합' 방식의 법회가 최근 직장불교회에서 주요 법회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일 직종 · 지역별로 뭉치고 있는 것은 정보 공유, 법사 지원, 수적 열세 극복 등 상호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직종간 연합단체를 결성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경찰불교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등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동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울산불교신행단체연합회, 대구 · 경산직장불교협의회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까운 사찰을 찾아 떠난다**=서울 은평구청 불심회는 매월 초하루에 지역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80여 개 사찰을 순례하면서 법회를 봉행한다. 사찰순례법회는 불단 설치부터 지도법사 섭외 등 법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사찰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서울 강남구청, 서대문구청 불심회 등 여러 구청 불자회들도 사찰순례법회를 통해 지역 사찰과 유대를 강화, 거점 사찰로 활용하고 있다.

▲**'테마' 법회 인기 많다**=의식 중심의 법회가 차량안전기원, 환경, 승진축하, 다도 및 사찰음식 강좌 등의 '테마법회'로 바뀌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절기에 맞는 윷놀이 · 설날 · 추석 법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만생명을 위한 불자들의 서원'을 담는 환경법회, 서울은행 불교행우회는 가족법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승진축하법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식상해온 직장불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자투리' 시간을 백분 활용한다**=언론사 불자연합회 회원사 4개 불교연구회는 24시간 방송, 신문제작 등에 따른 교대근무로 매월 한번 씩 '점심법회'를 보고 있다. 한 데 모이기 어려운 회원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한 약식법회는 '짧지만 굵은 법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금융결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등이 '1시간의 미학'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법회도 열리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 법우회는 아침시간을 활용, 참선 법회를 열고 있다. 이 같은 직장불자회의 법회 개최시간 파괴현상은 기존의 저녁 시간 법회에 비해 회원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 출범

18일 창립법회, 지도법사 백양사 목산스님

울산 지역 최초의 공무원 불자회가 창립됐다.

울산광역시청 불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 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는 한편, 18일 울산 백양사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창립준비위원장 장광대(도시개발과장 · 50)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는 4개월 전부터 청사 내 인트라넷을 통해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5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초대 지도법사로 백양사 주지 목산 스님을 위촉했다.

울산시청 불자회는 곧바로 정기법회, 수련회 개최, 인근 전통사찰 순례법회 등의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울산 지역 10여개 신행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자회는 1년 내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청에 불자회 창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불자회는 이들 구청을 순회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사찰과 결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장광대 위원장은 "울산 지역에서 처음 창립된 공무원 불자회인 만큼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법당마련 · 지회개편 추진

도시철도법우회, 올 사업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선다.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3일 서울 성동구 안정에서 신년 법회를 열고, 올해부터 자체 법당 마련, 지회 조직 개편, 사회봉사 활동 강화 등의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법우회는 우선 지하철 2호선 답십리역에 자체법당 마련을 추진해 안정적인 법회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회원 확대 차원에서 법우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우회 조직을 답십리역과 잠실역 등 2개의 지회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단체장



공불련 재경지역 신년법회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공불련 재경지역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영주암서 정기총회 열어

하명찬 우리은행 부산불자회는 18일 부산 망이동 영주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청해스님 초청 정기법회

서병하 서울 마포경찰서 불교회 회장은 21일 경찰서 4층 경승실에서 천안 만경사 주지 청해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서 신년하례 법회

최양섭 국세청 보리회 회장은 16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신년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맑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빚은 사찰토종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주1말 6kg 57,000원

● 연락처 : H · P 011-203-65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강릉 033)642-0987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은행 불교회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 우리 한국은행 불교회를 이렇게들 부르신다죠. 지난 1985년 12월 금융계 처음으로 불교회를 창립, 18년 째 한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봉행하는 불교회라며 칭찬들이 대단하다죠. 과찬이십니다. 다만 우리 불교회는 '불자답게 무애한 은행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신행생활을 해왔을 뿐입니다.

우리 불자회의 처음 식구는 본점 직원 3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직장불교회는 흔하지 않았지요. 기껏해야 사찰의 신도회 활동을 전부였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일터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고, 신행생활을 하려고 뭉쳤던 거죠. 대동은행장을 역임했던 조성춘 법우님, 현 동양그룹 고문인 홍순우 법우님 등의 초행 등 국내 20개 금융기관의 불교회 창립에 모태가 됐다는 점입니다. 89년 처음 봉행했던 전국금융단 합동법회가 올 봄에 29번째를 맞는 답니다. 더욱이 92년부터 각 은행 불교회 간사들의 모임인 '금융단 불교회 운영위원회' 결성을 주도해 봉축행사 참여, 불교방송국 개국준비 성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몰아닥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개의 금융계 불교회가 14개로 줄게 됐고, 98년에는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됨에 따라 회원 수도 급감하게 됐지요. 하지만 우리 불교회는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을 독송 · 참선 등의 소모임으로 다잡

국내 20개 금융기관 불교회 창립 모태

천수경 읽기 등 3월 12일부터 천일기도



◇'부처님 닮기를 서원합니다' 한국은행 불교회 회원들이 두손을 모으고 있다.

창기 회원들은 석주스님, 법정스님, 정병조, 이기영, 목정배 교수 등 교계에 내 노라는 당대의 스님과 학자를 초청,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지요. 또 전국 각 지점을 돌며 지회 불교회 창립을 지원하고, 매월 한 차례의 서울 근교 성지순례법회, 연 2회 용맹정진 법회, 해인사 수계법회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지요. 현재는 본점 외에도 대구경북 본부, 부산 본부, 광주 전남본부, 제주 본부 등 5개 지회에 200여 명의 회원이 신행활동을 하는 불교신행단체로 성장했지요.

우리 불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불교회 간사(대외협력팀 부국장)

고, 쉬지 않고 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죠. 지금은 <법화경>, <불교경전입문> 등의 교리강좌와 함께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불교회는 3월 12일부터 창립 20주년 맞는 2005년 12월 6일까지 천일기도에 들어갑니다. '매일 천수경 일독하기' 운동으로 전개되는 기도정진입니다. 이를 통해 '한결같다'는 한국은행 불교회 기존의 모습과 함께 금융계 불교회의 모범되는 직장불교단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하용이 한국은행 불교회 간사(대외협력팀 부국장)

“강화 선원사지 본래 절터 맞다”

21개 건물터 전형적 사찰배치 형식 갖춰

출토 연꽃무늬기와 · 금동나한상 뒷받침







◇강화 선원사지(사적 259호)에서 발굴된 추정 금당지(사진 위쪽)와 선원사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사진 아래 왼쪽) · 범자문 기와(사진 아래 오른쪽).

학계에서 그 위치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각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강화 선원사지(사적 259호)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번지 일대가 고려대장경판 봉안처인 선원사지로 추정돼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1977년. 이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동국대 박물관이 4차례에

동국대박물관 1~4차 발굴

임시궁궐터 주장 뒤집어

걸쳐 발굴했고, 이번에 나온 발굴 조사 보고서는 1~4차 발굴 결과를 한데 묶은 것이다.

현재의 사적지가 선원사 터가 아니라 강화 천도 시절 고려의 임시궁궐터였다는 주장은 강화지역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굴 이전부터 있어왔다. <동국여지승람>(15세기말 편찬)과 1931년 간행된 <속수증보 강도지(續修增補 江都誌)> 등 주로 문헌 기록을 근거로 한 주장의 핵심은 “현재의 선원사 터는 가궐터, 충렬사 앞 일대가 선원사 터”라는 것.

그러나 동국대 박물관(관장 장충식)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의 사적지가 선원사 터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문기와나 금석문 등의 직접적인 고고 자료를 얻지는 못했지만 사찰 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21개 건물터의 배치가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 출토유물 역시 절터였음을 뒷받침한다. 막새기와 대부분이 사찰 건물과 관련이 있는 연꽃 문양이나 범어가 새겨져 있고, 일반인들이 개인 신앙 차원에서 호신불로 지니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금동나한상도 출토됐다.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박씨’ ‘유씨’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역시 임시궁궐터라면 나올 수 없는 유물이다.

박물관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재 터는 선원사 옛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확실히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역만 동서 180m 남북 180m의 대규모 사찰로, 강화도 내에 이만한 규모의 절터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례 발굴에도 전체 사역과 대장경판을 보관했던 판전을 확인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탐색 작업을 통해 사적지 서쪽과 남쪽, 동북쪽 지역에서도 같은 시대 건물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서쪽 평탄한 지역은 판전일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을 추가 발굴하면 선원사 터임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상좌부’ · ‘소승’ 용어 혼용 잘못

불교평론誌 겨울호

‘상좌부 불교이해’ 특집

불교 계간지 <불교평론> 2002년 겨울호가 특집으로 다룬 주제는 ‘상좌부 불교의 이해’이다.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상좌부 불교에 붙어있는 ‘덧칠’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일방적 옹호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송위지 교수(서울보건대)는 먼저 “상좌부 불교와 소승 불교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용어 사용의 혼란을 지적했다.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는 불교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특정 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상좌부 불교는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 실재로 행해지고 있는 불교다.

‘상식’과는 달리 상좌부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송 교수는 아쇼카 왕의 전도사 파견을 기원으로 성립된 남방 상좌부 불교가 한자문화권의 북방 대승 불교보다는 훨씬 부처님 시대의 원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좌부 불교에는 기복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 옹호론은 수정 대상이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난다라타나 스님은 상좌부 불교에도 호주(護呪) 또는 호경(護經)이라고 부르는 피릿(paritta) 의식과 보리수 신앙 등 타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난다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는 교학과 학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태국 불교는 계율 중심주의, 미얀마 불교는 수행중심주의가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김재성(위빠사나 수행처 호두마을 지도법사)씨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상좌부 불교에서 행해지는 수행법을 정리했다. 미얀마는 마하시 계통과 레디 사야도 계통(고엔카 수행법이 대표적) 수행법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태국은 좀 복잡해 방콕 및 중부지역, 북부지역에서는 미얀마의 마하시 계통 수행법이 중심이지만 동북부 지역은 ‘부활한 숲 속의 수행 전통’, 남부 지역은 아찬 붓다다사의 수행법 위주다.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월부터 해체 보수

17세기 대표적 불전(佛殿) 가운데 하나인 전북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826호)이 전면 해체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은 14일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재와 일부 기둥이 부식돼 있고 건물 뒤쪽 기둥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전면 해체해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3~4월경 해체에 들어가며 17억 원의 예산에 보수 기간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신사 대적광전은 지난 99년과 92년, 83년에도 일부 부식된 기둥을 교체하고 지붕을 보수한 적은 있으나 전면 해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해 해체 보수에 들어갔던 사찰 목조건축물 4동 가운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7~8월경 공사가 끝나 예전의 고색창연한 자태를 다시 볼 수 있다.



◇보물 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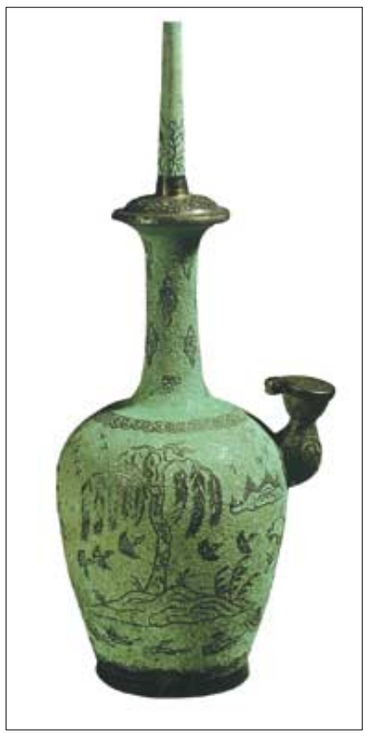
불교공예(5)

관음이 읊는 평화의 시

보타락카산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 곁에는 투명한 유리그릇으로 받친 정병(淨甁)이 놓여 있고 그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다. 이는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에 보이는 정병의 모습이다.

아미타여래는 대세지보살, 관음보살과 함께 극락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왕생자(往生者)를 맞이하는데, 이때 관음보살은 한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가볍게 쥐고 다른 한 손에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다. 이는 아미타불도 가운데 관음보살의 모습이다. 맑은 정화수가 담긴 정병과 버드나무는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지물(持物)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화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청동기와 청자로 제작된 정병이 적지 않게 전한다. 그 가운데 청동기로 제작된 청동제은입사정병(국보 92호)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청동제은입사정병(국보 92호, 11~12세기, 높이 37.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백년이 지난 지금도 우아하고 세련된 정병 속에는 평화롭고 시정이 넘치는 풍경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빼어난 예술품 청동 은입사 정병

낚시·오리 노니는 풍경 시정 듬뿍

입사(入絲)란 금속 표면에 음각으로 파고 그 안에 금실이나 은실을 넣어 문양을 내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을 사용한 가장 이른 예는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선사한 칠지도(七支刀)이다. 이 칼 표면에는 금입사(金入絲)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입사기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행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정병 · 향완 · 합 등 불교공예품에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청자만의 자랑인 삼강기법도 이 입사기법의 자극을 받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청동제은입사정병은 아담한 몸체에 둥근 어깨를 갖고 있다. 목은 유난히 길게 올라가다가 입술이 좌우로 활짝 피었고, 이와 입 맞춘 뚜껑 역시 긴 대롱을 꼽은 모자처럼 위로 높이 솟았다. 한쪽 어깨에는 짤막한 팔뚝처럼 주둥이를 붙였다. 날씬하게 뻗은 그릇의 형태가 매우 우아하고 세련되었다.

원래 이 정병은 청동색이지만 지금은 연녹색의 녹이 전체를 덮고 있어 오히려 독특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그 바탕 위에 은실이 명료하게 빛나고 있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이 산수표현은 회화작품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은 고려전기 회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그렇게 메마르지도 않은 절제된 선으로 물가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그릇의 앞뒤로 늘어져 있고 그 사이에 갈대숲이 점점이 떠있다.

물 위에는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하늘에는 기러기가 떼 지어 나르고 있다. 어부는 배를 타거나 물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 이처럼 평화로운 풍경에서는 시적인 정취까지 피어난다. 버드나무는 정병과 세트로 병마를 쫓는 상징으로서 정병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꼽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버드나무를 그릇 표면 위에 새겨 넣었다.

또한 굵기가 균일한 몇 가닥의 선으로 산수의 풍경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당나라나 요나라 벽화에서 보이는 양식을 연상케 한다. 11세기 고려의 정치상황을 감안해 보면, 당보다는 요, 즉 거란의 회화와의 관련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안내

• 위치 : 논산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법당 : 400평	• 법당 : 24평
• 요사 : 34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부지 : 229평	• 부지 : 3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9억	• 가액 : 7억	• 가액 : 3억 2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 시주금 오천만원(부부)
● 개인은 삼천만원
● 사망시 장사, 49제, 납골봉안
● 연중 제사(4번)등 일체 무료 봉행
031)989-7515
011)795-8576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철학 수강생 모집
수강비 없음,
숙식제공 무료
(명리학, 관상학 등)
011)9769-6699
031)726-1722

『신비의 경옥고』

▶수락산 암자에 정진중인 승려입니다.
스승께서 전수해 주신 경옥고를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경옥고의 효능 ※
★원기회복 ★수족저림완화 ★비염에 효능
★심한변비 효능 ★중풍예방 ★수명익수

● 중량 : ☞ 석달 분(용기포함 7.5kg) ● 가격 : ☞ 500,000만원
● H·P : ☞ 011-669-5708 / ☎ : ☞ 031)874-5700

사찰안내

● 위치 : 경주 감포
● 대지 : 약 270평
● 주택 : 22평(전원주택)
● 가액 : 6천 5백만원
※ 해수욕장에서 3Km
※ 차량진입, 남향
※ 마당잔디, 텃밭있음

<절터안내>
● 위치 : 기장 대변(면적 : 400평)
● 주택 15평 ● 바다보임 ● 평당 60만원
● 위치 : 울주 서생(면적 : 1100평)
● 바다 접 방파제 도로 있음
● 기암괴석과 노송 평당 50만원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직동 운동장옆
● 4층건물 4층 기존시설 장엄함
● 전세 3천 월 1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양도함
051)502-595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직1동 전철역 입구
● 4층건물 4층 시설일체완비
● 전세 3천 5백, 월 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즉시법회 가능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급 양도함
051)502-595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화성 부근
● 대지 220평, 요사채 30평, 법당 23평, 산신각 5평, 식당방 16평
● 특징 : 뒷편 야산,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1)785-567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60평, 4층건물에 2층
● 도심속에 최고시설 완비
대량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700(월세가능)
● 시설비 : 1억 3천 중 4천만원만 받고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인연있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9315-1200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채 80평
● 보증금 : 7억
● 도심 속 역사 깊은 도량임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지하철역 200m)
● 법당 : 26평
● 요사채 : 방1개
● 보증금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부근
● 건물 : 2층 4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삼존불, 탱화
● 가액 : 시설비 1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월세)
011)9276-0471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400평 , 전 300평
● 임야: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칠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1억 5천(분리 가능)
011)434-720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시 5층 건물 중 3층
● 법당, 응접실, 방, 부엌, 화장실,샤워장, 삼존불, 탱화, 냉장고 등 집기일체
●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600만원(실제 시설비 절반가격임)
● 계약금 있는 분만 연락
● 급한 사정임. 포교당 상주하는 사람있음
011)9973-4248
055)241-5359

사찰(급)안내

● 위치 : 고흥군 상림면
산세와 수림이 병풍처럼 우거진 청정도량 임
● 부지 : 5800평
● 법당 : 23평(3년전 준공)
● 산신각, 용왕당 각 4평씩
● 요사채 30평씩 2동(심야전기)
● 가액 : 3억 8천만원
납골당 준비 중 (대구에서 50분 거리)
053)326-4585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대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한옥, 양옥)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신라시대 국보급 불상이 있는 사찰임

● 위치 : 경남 밀양군(수산) 소재
● 부지 : 약 3백평
● 법당 : 30평(인법당)
● 토굴 : 25평(황토, 목조)
● 가액 : 1억 5천만원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 부지 : 605평
황토한옥(신축) 31평
● 특징 : 지리산에서 제일의 명당터
● 가액 : 2억
011)9323-3472

천하명당사찰부지안내

● 위치: 가평 율길리 임야
● 만평, 평당 3만원
● 37번국도변 100미터
● 폭4미터이상 도로확보
011)320-4060
018)275-8801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부근
● 2층건문 45평, 법당20평, 방2개, 거실, 주방, 샤워실
● 화장실은 별도로 있음
● 도로변 근접한 최적지
● 가액 : 전세 500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2)517-3001
011)9020-6037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최고 요지
● 법당 : 대로변 3층 전관 54평
● 가액 : 2000만원 -월136만원 (부가세포함)
● 시설비 : 9500만원(상가주택) 상담조정가능
● 불교 각종 의식 가능
011)9262-7011 / 017)799-5583

김해포교당

● 위치: 김해시 내동
● 삼존불(금장불 신중단 종합탱화 영가단 방3칸, 거실大자 2층 대로변)
● 건물 30평
● 가액: 보증금600만원 30만원 시설비 900만원(가격절충가능)
017)842-503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 법당 20평
● 요사20평
● 대지120평
● 가액 6300만원
054)534-786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부근
● 대지 2400평, 법당40평,
● 삼존불, 요사채70평, 방 3개
응접실 100명 정도 앉을수 있는 공간 있음. 논밭 있음
주차장 30여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43)872-3375
02)423-0724
011)446-0724

풍수 강좌 감정 상담

新 지리풍수학 저자직강
www.poongsoo.net
전국 유명 혈지 상담(陽宅, 陰宅)
※강좌 - 수요일 : 주간반 3시 ~ 5시, 야간반 7시 ~ 9시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사찰안내

● 위치 : 김포
● 부 지 : 15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1억 5천
● 위 치 : 논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36평
● 부 지 : 300평
● 가 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대로 70m)
● 건물 : 3층 건물 중 3층(20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시설 A급)
031)919-0306
011)9701-060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종점
● 대지 : 370평 목조 인법당
● 건물 : 2동
054)434-1857

사찰안내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197
● 대지 12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30평 돌탑 4개
● 가액 : 5천7백만원
● 토지나 주택 부동산과 교환가능, 전세가능
063)634-8755
017)710-1775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소재
● 부지 : 854평,
● 법당 : 60평
● 요사채 : 60평,
● 기타 : 90평
* 큰 차로에서 약 800M위치한 야산
● 가액 : 3억8천만원
052)264-4209
011)9509-4209

역학 수강생 모집

□ 불가에 전래되어 온 전통 명리비법
- 자연의 순환 변화의 이치를 인생에 접목한 한치 오차도 없는 운명감정 및 문제해결법
□ 기초에서 전문까지 5개월 책임완성
- 5개월후 전화 역학상담 취업보장
- 수강료 5개월 2백만원
□ 강 사 : 현기법사
- 고려대 대학원 석사, 불교대 법사, 운명서원 원장
귀 자비사 ☎ 02) 426-2182
(강동구 길동 구분다리 전철역)

불교신행단체, 철야 정진 기도 하실 분들에게 언제든지 빌려드립니다.

● 법당 : 200평 ● 요사채 : 20평×3
● 현대식 시설
분당하얀마음선원 031)707-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에서 통영중간 지점
● 부지 : 600평, 법당 : 30평
삼포 목재 단청된 30년 전통사찰
산신, 용왕각
● 부대시설 : 요사채 50평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 인접하며, 절 뒤에서 보면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 3천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011)9384-7893

촌집(암자)안내

● 위치: 경주시내근교
● 평수 : 건평 108평 건물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삭월세 250만원
시설물 850만원
(개금불상, 삼존불, 산신각)
054)773-6352
016)898-6352

사찰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빙의와 영가장애

영가장애로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몇 번 천도 의식을 치루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천도된 것 같지 않을 때, 이곳 선림원에서는 본인에 의해 한번에 영원히, 시원하게 해결됨을 체험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대신 해 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합니다.

마 음 禪 林 院
033)435-3166

사찰용지안내

옥정호 저수지를 돌아 상단부에 있고
안산은 호승예불형이고 서출동류임
사찰이나 연수원 휴양지로 적합
전 3754평 임야 3885평 합7637평 붙어있음
● 위치 :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금당골
● 연락처 : 011-469-565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시청 정문 앞 4층
● 법당 : 총 42평(방2,주방,다용도실)
● 청동,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인등단 모셔져 있음)
● 가액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349-1586

토굴 터 구함

● 참선 수행 할 토굴
● 200~300평
● 위치 : 경상도
●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011)9207-2488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근교
● 부지 : 약 9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채 : 150평(3동)
● 양도가 : 15억
● 뒤는 산세 좋으며 서울강남에서 40분거리
011)530-1975

그림같은 별장

● 관세음보살이 출현한다는 남해 관음포
● 최고 명당에 위치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별장
● 대지 500평 현시가
● 평당 15만원
● 현대식건물 1동 30평 건축비 1억 조경비 2억
● 가액 1억 5천만원
● 보시하는 마음으로 양도함
011)841-9934

공 고

· 성 명 : 김진희 · 법 명 : 신향
· 주민번호 : 800713-27699415
귀사단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방향 등과 맞지 않아 탈퇴하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사)금강선원 이사장 귀하

특수공능 비법 대공개

소주천,대주천이 단 하루만에 열릴 수 있고 천목이 열려 영상을 보게되며 미래를 예측 할 수 있고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으며 온몸의 독소를 제거 할 수 있는특수기공 밀법을 국내 최초로 대공개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02)3446-4118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1억은 1년뒤에 지급해도됨)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부근
● 2층 23평, 방1칸, 주방 1칸,법당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419-1489
052)296-242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수유1동
● 법당: 4층 건물에 2층 60평
● 삼존불, 후불, 지장, 산신, 108지장 보살 모셔짐, 방3ㅐ, 주방시설 완비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18)325-8802 반야심
016)697-6663 정진화
02)907-1643
줄가(스님)를 원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미국가서 사실분(비구니, 사미니)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양정동 연재구청 밑
● 십년간 사용, 평수 : 25평
● 전세+보증금 1300만원 월 20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들어오면 됨
● 법당, 방1개, 주방겸 거실, 베란다, 옥상 사용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요망
055)882-4140
011)550-4425

탈 종 공 고

· 사찰주소 : 경기도 양평군 당월면 석산리
· 사찰명 : 대원암 · 법 명 : 성운 (임효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1월 1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bbab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림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법 회 안 내
삼각산 심우정사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
보름 법회 오전 10시
서울 종로 신영동 산 4번지
02)391-1421주지 범진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영장산 극락도량 **대한불교 대승종 성보사 주지 영인**
매월(음) 초하루대법회
매월(음) 보름(15일) 조상천도법회
매월(음) 24일 관음재일법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7-149호
031)753-3360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삼각산 내원사
초 하 루 대 법 회
지장재일(음18)
관음재일(음24)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1번지
02)941-2011, 909-1366

서대문 광명사
초 하 루 대 법 회
약사재일(음8)
보름법회 관음재일(음24)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02)735-1896, 736-1895



평생 함께 사실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52-7905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02)353-3004
02)359-77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65세미만, 월 80만원
054)533-2133
016-9245-1155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산사입니다.
포교와 기도를 전담할
스님을 구합니다
보시금은 능력에 따라 지급함
011-722-3418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성북동 여래사
011-732-6933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기도하실노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무량사
043)851-4879
017-766-851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태화선원
041)734-1447
041)735-0366

차가 필요한 스님입니다
타시던 차라도 연락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기도하실분 모십니다.
011-9516-2566

공양주 구합니다.
60세 이하, 월 80만원
▷ 경기도 가평
031)585-5108
011-390-0108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017-710-17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041)856-7170
041)857-0621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분
▷50세 이후
011-483-5639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용 암 사
▷ 서울 은평구 진과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절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평생 같이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찰을 보살님과
공동명의로 해드립니다.
031)532-6661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 ·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2)408-6368

오래 계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마천동
02)408-6368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286-1779
기본 보시는 월80만원
능력에 따라 급여가 오를 수 있음.
1년 동안 부전으로 서로 뜻이 맞으면
사찰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50세 이하, 사찰규모가 큼. 창원오봉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바닷가근교
011-560-4322

스님 모십니다.
수행과 사찰을 하실스님을 모십니다.
▷ 지역 : 충남 아산온천지역
011-701-0140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을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스님을 모십니다
조용한 도량입니다.
불사때만 보시가 허용되며 월 보시에는 곤란한 사찰입니다.
가족처럼 지내실 스님을 모십니다.
053)585-0450

강원도 산사에서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61-5055



불심으로 약방문을 지어 올립니다
삼 의 한 의 원
인술의 기본 처방에 불교인 동도로서불심을
담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가까운 도반입니다.
침구과(보약, 광약), 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원장 엄원섭
02)966-5725,968-7777
(제기동 미도파 옆 약전골목 입구)



사 람 을 찾 습 니 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 56세 키 :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른스님이 모시고 가셨을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현금으로 후사하겠습니다.
017-653-1077/011-9723-1043

군 포교 불사 후원
호국 법해사
지도법사 송정스님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10-33
031)445-0573
011-748-6452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명학역 앞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화엄기도도량 해 원 사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031)336-3734
011-9711-3734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 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일심사 甲寅山神大祭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납이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서른세분 산신님을 봉안하고
癸未年 正月十日甲寅月甲寅日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오니
산신님과 인연불자는 일심사 甲寅산신제에 동참하시어 새해에는
국운발전, 업장소멸,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2월 10일 (음 正月十日) 오전 10시
- 장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1구 일심사 산신각
- 동참금 10만원을 입금하시고 016)289-1187로 연락주시면 기도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466802-04-007694 / 예금주 : 정문식)

일 심 사 주지 설호 합장 Tel. 041)356-1187

性命雙手 공법으로서 몸과 마음을 닦는 최상승 수련대법
法輪大法(파룬궁)무료전수 안내
물질적 삶에는 풍요롭고 충족한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날로 타락과 지쳐가고 있습니다.
온갖 공해와 오염뿐물질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파룬궁은 아무런 댓가없이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연락처 : 019-201-9532 http://www.falundafa.or.kr

마음의 쉼터(단기출가)
강원도 죽림산의 정기를 한곳으로 모은 청정도량에서 일상을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부처님 품안 죽림산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본래 갖췌져 있는 당신,
자신안에 있는 삼보를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재충전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쉬어 가십시오.
'식흘동안 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하여 모은 물건 아루아침에 티끌이라'
033)345-6008 竹林山 마음의 쉼터

죽는 그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는!
● 질병 예방 및 이기는 攝生(섭생)
● 온갖 질병(난치병)을 다스리고, 온갖공해에서 건강을
지키는 "숨"호흡법을 대한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후원해 주실 분이나, 장소 제공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섭생 및 송호흡법 창시자(개발자) 全 昇 健
몸사랑 · 자연사랑 017)332-3357

기 공 지 도 자
20여년 전통수련관 태극권, 운기공, 진기단법 청강호흡
氣치료 즉시 효과를 봅니다
051)556-9700
한국불교 전통 기공 불선도협회본부 www.bulsundo.com



삼환식물성양초
· 특 징 ·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낙화 (만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승복 및 개량한복 맞춤 판매
가사, 장삼, 승복, 신도복, 개량한복 일체
각종생활 도자기도 있습니다
아 라 나
부산시 부전동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한 국 목 탄 연 구 소
·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925-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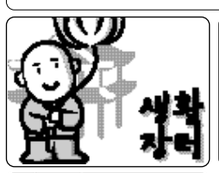
쑥담배 BULE (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정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삼환식물성양초
· 특 징 ·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전국어디서나 1544-1088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青 雲 易 學 院
02)723-7449

A+TOUR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교성지순례
▷ 국/내외 여행
▷ 할인항공권/여권/비자
▷ 카나다 유학/어학연수/영어캠프
▷ 투어디자이너 및 영업사원모집
(주)에이플러스여행사 02)735-8844

목초수액시트
잠자는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목어

명품 집착



이경숙
취재2부장

최근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바겐세일을 했는데 경기 탓인지 다른 매장들이 썰렁한 가운데도 외국의 유명 브랜드, 즉 '명품' 코너만은 '만원사례'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명품들의 가격이 세일한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7백만원짜리 코트가 5백만원, 5백만원짜리 양복은 3백만원인데도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명품열은 엄청나다. 20대 젊은 여성이 핸드백 하나에 한달치가 넘는 월급을 털어넣기도 하고, 수백만원 코트 하나를 위해 카드를 겁없이 내민다. 명품을 사기 위한 '명품계'까지 유행이며, 중고 명품점, 명품아울렛 매장에 명품전당포까지 등장했다. 인터넷에도 중고명품 사이트만 100여개가 넘는다.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할까. 단순히 물건의 질이 빼어나서가 아니다. '구치' 니 '프라다' '버버리'니 하는 이름에 얹혀 자신이 마치 '귀족'이 된 듯한 허영심 때문이 아닐까. 비싼 명품을 걸치면 사람까지 달리 대우하는, 외모나 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의 잘못된 풍조 탓도 크다. 확고한 자기중심이 없기에, 남의 시선과 말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며 비싼 물건에 기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병'에 중독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명품'이란 말도 고쳐 불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수십년 외길을 걸은 장인(匠人)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물건이야말로 진정한 '명품(名品)'이다. 장인들의 작품을 명품으로 부르고, 고가의 외국 브랜드 제품은 그냥 '고가품(高價品)' 또는 '사치품(奢侈品)'으로 부르자는 것인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북한어린이 돕기 릴레이 메일

북한 어린이 400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다 죽게 되었다는 방송이 나온 후 북한 어린이를 살리자는 릴레이 메일이 시작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불교포럼에서 시작한 릴레이 메일은 메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형식을 띄고 있다. 또 불교계 대북지원 창구인 좋은벗들(02-587-8996)이나 평불협(02-735-5558)의 전화번호, 후원계좌 등을 담고 있다.

창균수비

15% 사찰만 어린이·청소년 법회 열어

조계종 포교원 황찬익 포교과장은 지난 1월 14~16일 2002학년도 전국교법사단 연수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종단의 청소년 포교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조계종 사찰 가운데 15% 정도만이 어린이, 학생 청년법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사찰과 종단 등 모든 사부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교수
전북대 · 윤리학

노력하는 삶 좀먹는 '대박의 꿈'

"꿈★은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월드컵이 안겨다 준 정신적 자산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대박의 꿈은 이루어진다"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해 연말에 새로 선 보인 로또 복권에 어느 평범한 40대 가장이 국내 복권 사상 최고액인 65억 원에 당첨되어 우리에게 '대박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로또 신드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복권만이 아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우리 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20~30%씩 고속 성장해 금년에는 무려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리만큼 사행산업은 번창 일로를 달리고 있다.

꿈은 아름답다. 그러나 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꿈이 창조적 노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출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권이나 카지노를 통한 대박의 꿈은 노동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가 아니라, 거꾸로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는 향락주의 인생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꿈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니 이런 꿈은 하나의 아편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권이란 꿈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첫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탕주의 문화 조장이다. 주택 건설, 스포츠 육성, 지자체 세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사행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함으로써 '나도 대박의 꿈' 심리를 조장하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둘째는 열심히 일해도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다.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4강이 현실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돈 없이는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경제적 여건 악화로 열심히 일해도 직장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유일한 탈출구는 대박(?)밖에 없지 않는가? 65억 원 복권 당첨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애들 과외시킬 수 있겠네요"라고 한 말은 이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셋째는 한국인들의 두 가지 잘못된 심리이다. 하나는 '설마'의 심리요, 다른 하나는 '혹시나'의 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설마' 하면서 안심하는 반면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혹시나' 하면서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 현재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 어른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기우뚱거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혹시나'의 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과 우리 국민의 '혹시나' 심리가 하나 되어 복권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헛된 기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그 반대로 줄어든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 경우,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랑하면 행복은커녕 그 사랑조차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함에서 혹은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않는가? 대박의 꿈과 한탕주의로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2003년,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를 중단하면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작가 에디스 워튼의 말을 기억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의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 강연

왜 한국에선 근대와 기독교가 동일시되었는가?

경쟁 세력 형성 안된 상황서 '독립신문' 불교 공격 이끌어

우리 안의 일상적 폭력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가 6~11일 대학로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에서 '박노자와 함께 하는 근대 계몽기 탐사' 강좌를 열었다. 11일 마지막 강좌의 주제는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 강연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편집자주〉

개항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대'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독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만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근대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보면 반기독교 운동이 곧 민족주의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었고 근대화였다.

일본에서 기독교와 근대의 동일화를 막았던 것은, 바로 민족주의와 결합한 불교라는 강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내셔널리즘 담론에 흡수돼 버린 일본 '어용' 불교는 '애국심'이란 논리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고 따돌리려고 했다. 국가와 유착돼 있던 일본 불교는 현실적으로도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기독교와 근대, 기독교와 문명개화가 일치감치 동일시되었을까? 서양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야말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의 장에서 기독교와 경쟁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박노자 교수는 11일 대학로 '수유연구소+연구공간 너머'에서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적어도 신채호, 김옥균 같은 초기개화파들은 유교를 대신해 불교가 개화사상이 될 수 있을 않을까 하여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물론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불교=근대화'를 기대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근대와 동일시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서재필, 윤치호 같은 미국에서 공부한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귀국해 활동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독립신문>을 통해 불교가 전근대적이고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고 공격하며 대신 기독교야말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논조는 <대한매일신보>도 마찬가지였다.

즉, 초기 개화기 신문들이 기독교를 '부강의 힘'으로 선전했고 이것이 점차 지배적 담론이 돼 버린 것이다.

개화기 신문들의 이 같은 공격에 한국 불교는 제대로 반격을 못했다. 한용운 스님 한 분만이 제대로 된 반격을 했으나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격을 볼 수 없다.

독자투고

이종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회사원)

'석탄일' 아닌 '부처님 오신날'로

음력 4월 8일의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939호)'에 의해 '석가탄신일'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봉축위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하도록 권장해 왔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중적이지는 못해 비불교인이나 일반 언론, 달력, 다이어리 등에서는 '석가탄신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음력 4월 8일에 대한 명칭을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불교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 봉축행사시에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해 달라는 권장은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라 할 수는 없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종단대표들의 결의하에 "음력 4월 8일에 대한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한다"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공식발표, 개정노력, 대중인식 필요

둘째, 이 명칭은 법적인 보호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식발표 이후 '관공서의…'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양력 12월 25일이 규정에는 '기독탄신일'이나 대중적으로는 '성탄절'이라 표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국의 교구본사나 청년단체들이 나서서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제작하는 업체, 언론기관에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올해 하안거부터 비구니 선원으로 개원하는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 전경. 사진= 박원구 기자

운문사 문수선원 개원

명성스님 30년 불사 비구니납자 20명 하안거 방부

비구니 교육의 요람인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가 문수선원(文殊禪院)을 개원한다.

운문사 문수선원(선원장 혜은)은 지난해 말 선방 요사채 화장실채 등 당우 5채를 건립하고, 5월 15일 계미년 하안거부터 비구니 납자들의 방부를 받는다. 문수선원 방부인원은 20명. 문의 054) 372~5090.

이번에 새로 건립된 문수선원은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바쳐온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불사이다. 스님은 30여 년전부터 운문사 전법 교육도량이 자칫 교(敎)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선원 터를 잡고 불사를 추진해왔다. 문수선원은 1997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5년만인 지난해 11월 4일 준공됐다.

선원장 혜은스님은 "이번에 선원을 개원한 것은 선찰로 유명했던 운문사의 옛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함이요, 선교일치 사상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문수선원에 제방의 수좌들과 사부대중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 추진

장육사, 기념관 건립 · '나옹정' 조성

영덕 장육사에 나옹선사 기념관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성역화 사업이 진행된다.

장육사(주지 종수스님)는 최근 경북 영덕군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예산 5억 여원을 들여 사찰 내 홍예교 보수 및 주차장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50평 규모의 전시실을 갖춘 나옹선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2천 5년까지 10억 5천여 만원을 들여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육사는 영덕군 창수면과 함께 2004년까지 7천 5백만원을 들여 나옹화상이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거목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일대 천여평의 부지에 소공원 '나옹정'을 조성키로 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통도사 문화지원 봉사회 경일헌 회장 취임 법회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1일 박물관 중앙괘불전에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박물관장 범하스님을 비롯한 문화자원봉사회 임원, 문화자원봉사회후원회 회원, 박물관 발전위원회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문화자원봉사회 제4대 회장으로 경일헌 회장이 추대되었다.<관련 인터뷰 4면>

또한 직전 회장 박해종 회장은 박물관회 회장으로 추대돼 문화자원봉사회와 후원회 등의 활동을 총괄해서 이끌게 되었다. 천미희기자

각 대학 복지학과 학생들 교계복지관서 실습 · 체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복지관인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 양정청소년회관 등은 각 대학 복지과 학생들을 복지관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돕고 있다. 개금복지관이 1월 6일부터 사전 교육을 마치고 4주간의 실습기간에 들어간 것을 비롯 양정청소년회관은 동의대, 대동애, 부산여자대학 등에서 참가한 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용호복지관 또한,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4주간 경성대, 동의대, 동부산대 등의 학생 9명이 참가한 복지실습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천미희기자



◇20일 문을 연 개금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려운 지역민과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금복지관 경로식당 새단장…무료급식 재개

개금복지관(관장 박용하)은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새롭게 단장하고 13일부터 첫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4인용 탁자 12개를 마련한 경로식당은 도개공 상가 1층에 문을 열었다. 13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친후 20일 정식으로 문을 연 경로식당 개원으로 좁은 경로당의 방바닥에 식판을 놓고 식사를 해왔던 노인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다. 새롭게 단장된 경로식당은 48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지역민과 노인들에게 개방되어 무료급식을 하게 된다. 후원문의 051)893-5034 천미희기자

1년간 도난 불교문화재 44건

경상북도 발표

경북 도내에서 지난 1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화재였던 것으로 드러나 불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도난당한 100여건의 문화재 중 44건이 불교문화재였다고 최근 밝혔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중 대부분은 개인이나 사찰이 보관해 오던 비지정 문화재였으나, 보물 959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을 비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문화재도 15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역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도난 문화재 중 회수된 경우는 조사기간 중 12건에 불과해 거의 되찾을 수 없다"며 "도난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영남지역 종무원 처우 열악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찰 1곳뿐

영남지역 9개 교구본사에 대해 사찰 종무원에 대한 처우를 판단할 수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대구 동화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화사는 지난해까지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 영남지역 교구본사 중 최초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찰이 됐다.

직지사, 은해사 등은 조만간 4대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6개 교구본사들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의 한 종무원은 "스님들에게 종무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에 대해 요청하면 그런 말을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는 반응을 보여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다"며 "종단이나 단위 사찰의 스님들의 인식 개선과 투자와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구기자

은하사, 우표에 담겼다 김해시, 기념우표집 발행



은하사 전경이 우표<사진>에 담겼다. 김해시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문화재와 특산품의 사진을 우표화해 한 권의 책으로 제작, 발간했다

'아름다운 김해' 기념우표모음집에는 액면가 190원 상당의 우표와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이번에 사진에 담긴 은하사는 가락국 수로왕 때 장유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1600년대에 중창된 김해를 대표하는 고찰이다.

천미희기자

고산스님 시집 펴내 쌍계사서 출판기념법회

전 조계총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칠순을 맞아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 · 들녘 · 값12000원>를 펴내고 11일 쌍계사에서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 쌍계사 강주 통광스님을 비롯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법회는 봉정법회에 이어 고산스님의 칠순을 기념하는 법회를 함께 열었다. <마음이 곧 부처다>에는 '나의 출가' '병' '이 무엇인고' '모두 놓아버리다' '얻을 바 없음' '깨달음의 노래' '열반의 노래' 등 116편의 시와 관음찬 이십송, 지장찬 이십송, 화엄산림 입재와 회향송 등이 부록으로 담겨있다.

천미희기자



◇고산스님 칠순기념 노래시집 출판기념 법회가 11일 쌍계사에서 열렸다.

축서사 화재…요사채 1동 전소

원인 전기합선 추정, 인명피해 없어

10일 아침 7시경 봉화 문수산 축서사에서 화재가 발생, 요사채 1개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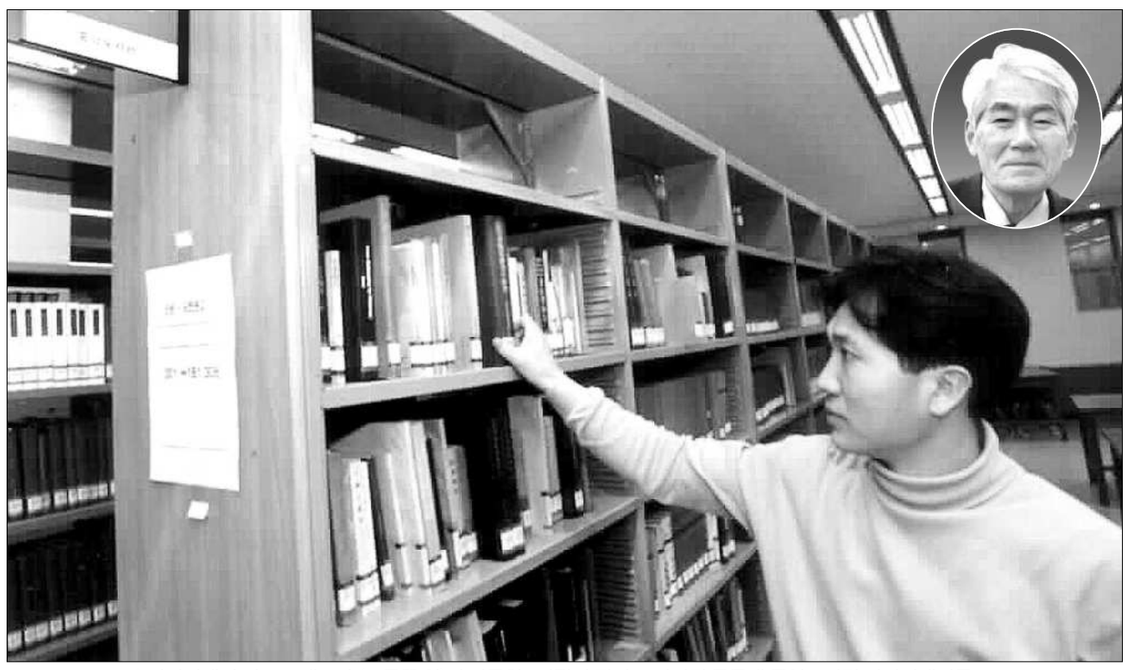
이번 화재에서 보물 제995호 축서사 보광전과 성도절 행사를 위해 절에 모인 신도들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요사채에 설치된 심야전기 조절용 콘트롤 박스의 합선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축서사는 의상대사가 신라문무왕 13년인 673년에 창건한 사찰로 6.25 전쟁때 소실돼 최근 새 건물로 단장한 바 있다. 박원구기자

日 시마다겐지 전 교토大교수

장서 3만권 동국대 기증



◇시마다겐지 전 교토대 교수(오른쪽 위)가 기증한 3만권의 장서로 마련된 동국대 중앙도서관 시마다겐지문고.

신축중앙도서관에 '시마다겐지 문고'

중국사상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교토대학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고(故) 시마다겐지(島田虔次) 교수가 평생 모은 3만여권의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했다.

동국대는 시마다겐지 교수가 기증한 4천여책을 넘는 귀중한 고서를 비롯하여 2만여 권에 이르는 동양서, 5백여 권의 서양서, 6백5십여종 6천여권의 정기간행물 등 총 3만여권으로 시마다겐지문고(島田虔次文庫)를 신축 중앙도서관에 마련했다. 시마다겐지문고 개관식은27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며, 시마다겐지 교수의 부인 시마다 모토코 여사 등 유족들에게 감사패를 전할 예정이다.

시마다겐지 교수 유족들이 기증한 장서들은 중국사상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와 연구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3월 81세의 일기로 사망한 시마다겐지 교수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빈궁한 시절부터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동서양의 중국사상사 관련 책을 수집했다. 그래서 부인 시마다 모토코 여사와 두 딸을 비롯한 유족, 선생의 고제들은 장서가 흩어지지 않고, 문고 이용도가 높아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증상대를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고인의 제자이며, 교토대학 문학부 초빙학자였던 동국대 역사교육과 정태섭(53)교수에게 장서기증 의향을 전했다.

정태섭 교수는 "일본학자에 의해 중국사상사 연구를 위한 극히 뛰어난 관련도서의 집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그대로 한국으로 건너왔다"며 "이 문고를 계기로 많은 학자들과 문화교류에 공헌할 문화인들이 배출되어 동아시아 삼국의 학문과 우호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마다겐지 교수는 1917년 히로시마현(廣島縣) 출신으로 1941년도에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다. 사마다겐지 교수는 엄격한 한문독해를 극히 중시하는 교토학파를 만들어 한학에 정통한 뛰어난 중국사 연구자를 많이 배출했다. 주요저서로는 <중국에 있어서 근대사유의 좌절> <중국사상사 연구>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봉선사 본·말사 환경위원회 구성

북한산 우회노선 관철운동 등 전개

"우리 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15일 교구 본·말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일면·봉선사 주지)를 결성하고 수행 환경 및 지역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제25교구 환경위원회는 교구 내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우회노선 관철 지지, 용문산 향토민속박물관 건립 전면 재검토를 올해 사업 목표로 설정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광릉숲 보존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전개, 말사 환경 침해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사찰이 먼저 친환경적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위원회에는 일면 스님을 위원장으로 본·말사 스님 20여 명과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부회장, 광릉숲보존회 간사 한상태 교수 등 지역 환경전문가 4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권형진 기자

광주 미륵복지원 개원

노인에 도시락·무료진료 지원

독거노인 일자리 마련, 소외여성 직업창출을 위한 전통음식 개발 판매 등 생산적 복지활동이 광주에서 전개된다.

미륵사(주지 청안)는 11일 광주시 용산동 뉴스코마트 2층에서 미륵복지원 개원식을 갖고, 불우노인 일자리 마련과 도시락 지원, 매주 1회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사업과 풍수수맥 강좌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 등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 소외여성 직업창출과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전통 음식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는 미륵식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륵식품 운영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와 학비 지원,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김원우 기자

법주사 팔상전 상륜부 월말부터 보수작업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5층탑인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의 상륜부가 이달 말부터 보수에 들어간다.

법주사(주지 지명)는 최근 "상륜부를 받치는 철제받침에 균열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부식돼 교체하기로 했다"며 "깨어진 상륜부의 보륜 부분도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보수 기간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형진 기자

지리산 희생자들 위령 1000일기도 700일 회향

지리산 좌우이념대립 희생자를 위령하고 생명평화·민족화해·평화통일을 위한 1000일 기도 700일 회향식이 봉행됐다.

16일 실상사에서 봉행된 1000일 기도 700일 회향식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1000일 기도는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지역, 종교, 이념의 큰 벽을 허물고 민족의 대화합을 모색하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경남 함양신협 3층에서 700일 회향 기념 장회익 녹색대학 총장(전 서울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도 개최됐다.

남동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빛나지 않으며 빛나는 '淸듀엣'

서울 일광사 이정진·김옥빈 보살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울~었소, 소리 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구성진 노랫가락, 서울 망우동 일광사 공양간이 들썩인다. 수요노인잔치가 있는 날, 아침부터 이 지역 독거노인 5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일찌감치 노인들은 길게 늘어선 채 기다리면서도 잔뜩 흥을 돋운 주지 보혜 스님의 노래에 웃어댄다.

빛나지 않으면서 빛나는 일광사 '청(淸) 듀엣', 이정진(55, 청행심)·김옥빈(41, 청정심) 보살. 부지런히 음식을 식판에 담는다. 새벽부터 잔치 준비를 했지만, 입소문이 퍼져 먼 곳에서까지 몰려든 노인들로 인해 손놀릴 시간이 없다. 그래도 미소는 잊지 않는다.

이정진 보살. 이렇게 수요노인잔치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10년째다. 일광사가 20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에 노인잔치를 열어 왔으니, 절반의 세월을 함께 해온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관리에서부터 공양 간 먹을거리 구입, 각종 행사 준비까지 이 보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때문에 일광사에서는 이 보살을 '절 귀신'이라고 부를 정도다.

"'천권의 책을 읽는 자는 바보요, 단 한번의 실천을 한 자는 명인이다'라는 회주 일광스님의 법문을 듣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보살은 가족신행으로도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 김경호(58, 재각) 씨는 거사불교회 활동을, 딸 윤경(26) 씨는 대학재학 시설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는 등 온 가족이 불자다.

또 한 명, 김옥빈 보살. 일광사 '지역 사령관'이다. 17년 째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일광사 '사랑의 쌀 나누기' 활동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을 돌며 독거 장애인 집을 방문해 청소,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맡는 것도 모자라, 현장을 진두지휘(?)한다고 해서 자비회 회원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이정진 수요노인잔치 봉사 10년 '절귀신'
김옥빈 사랑의 쌀나누기 활동 선봉장



◇"어르신! 부족한 것 없으세요. 더 갖다 드릴까요?" 일광사 이정진(맨 왼쪽), 김옥빈(왼쪽 세 번째) 보살이 자상하게 묻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5년 전쯤 겨울이었죠. 첫 방문을 나갔을 때였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계시더군요. 순간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양말 한 짝만 헤져도 버려왔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불자라면, 저절로 봉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정진, 김옥빈 보살, 두 보살에게서 당당함이 느껴졌다.

김철우 기자



추천의 말

보혜스님 일광사 주지

일광사의 두 보배

봉사는 볼 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재다보면 생각만 많아져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정진, 김옥빈 두 보살은 진정한 의미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것도 소처럼 우직할 정도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주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수요일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보살은 일광사의 신도관리와 각종 행사까지 도맡는 보배들 입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 사이버 몰 마하몰(www.mahamall.co.kr)

설날맞이 大 특전 상품전

※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원적외선 찜질팩(10매)을 드립니다.
● 기간 : 2003. 1. 20 ~ 2. 10 (20일간)



www.mahamall.co.kr

불교용품 展

디지털불경 룸비니	35,000
연옥합장주	7,000
교리기도염주	35,000
오분향(목욕용)	20,000
무공해식물성양초(12개입)	48,000
뿌리죽비(大)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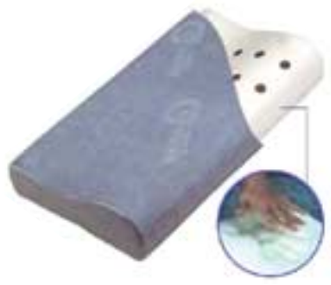
공예문화 展

희담석다기세트	80,000
미륵반가사유상(회향목)	300,000
용무늬 풍경세트	30,000
백자달마쌀독 20kg	68,000
청자5인다기	40,000
월드컵 소종	192,500

마하몰 노마진상품

www.mahamall.co.kr

(30개 한정판매)



37℃氣베개

색상 : 아이보리
사이즈 : 47cm x 29cm x 8cm
~~정상가 : 69,000원~~
할인가 : 39,800원

기베개 – 목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며 원적외선 방사체인 기암석(LIFE SOUL)을 부착하여 숙면을 유도하여 피로를 해소시켜 드립니다.



숯참선명상방석

사이즈 : 39cm x 43cm
~~정상가 : 35,000원~~
할인가 : 25,000원

특 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현상공덕향 세트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0,000원

국내최초로 개발.
"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추천!! 효도상품 하이라이트

www.mahamall.co.kr

희담석 찜질팩
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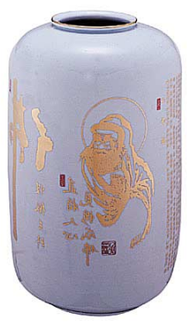
참숯베개
35,000



건강지압봉
16,000



천수경순금 사리백자
230,000



보원향선물세트
60,000



금자석 연옥합장주
150,000



건강향기방석
77,000



연꽃불자시계
99,000



숯 목걸이
19,800



무심정식
105,000



삼보죽염세트 105,000



서울부황 98,000



팬시용품 展

전통창호 차걸이등 세트	18,000
전통창호 열쇠고리 세트	10,000
연꽃연밥차걸이세트	7,000
링목탁 핸드폰 걸이	4,000
연꽃앞치마	5,000
보리수잎 성불인사장	3,500

생활건강 展

대나무수액시트(사은품증정)	90,000
불자용 행운넥타이	38,000
패철(大)-풍수지리기구	200,000
미농6종 혼합세트	47,700
불성차(우전)	90,000
희담석 방석	198,000

음반(CD) 展

불교방송가릉빈가합창단CD	15,000
영산(송암큰스님 유작CD)	70,000
대부모은중경(영인스님비디오)	20,000
관세음보살보문품(영인스님 비디오)	20,000
산사의명상음악 1~6	각 10,000
국악명상음악 1, 2	각 10,000
영검을하루같이-정율스님찬불가모음	10,000
새벽종송(상진스님CD)	10,000
범패와작법무(일초스님)	12,000
선의세계 1~4	각 10,000



10~20% OFF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제품이 한자리에..

※ 주문시 종류 및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한방폴로티 25,000
한방면티 19,000
한방팬티(남성용) 11,000
천연염색이불 150,000
아로마 약초 베개 39,000
천연염색손수건 15,000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주문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내손으로 벽화의 원모습을 되살리겠다'는 서원을 세운 한경순 교수.

우리나라 유일의 벽화보존처리 전문가인 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부석사 벽화 보존 처리 현장서 만난

한경순 교수

"처음 모습 되살리면서 세월과 대화 나눕니다"

기술 부족…무리한 시도 땐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전국 사찰벽화 무관심 속 방치 보호막 설치 등 노력 기울여야

벽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안거철이면 선방에 드는 스님들. 그들은 벽을 보고 있지만 실상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 즉 본성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와는 다른 이유로 대부분의 시간을 벽만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 벽화보존처리 전문가 한경순 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 41).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벽을 보고 있다. 지난 10일, 부석사 보장각(寶藏閣)에서 만난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인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를 보고 있었다. 700년 세월을 이어온, 그러나 지금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낙서가 가득한 모습으로 유리 보호곽에 둘러싸인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지난 1년간 벽화의 실측과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기록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벽화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실내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장의 환경도 개선했다. 현재는 벽화에 묻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을 두 달에 걸쳐 하고 있다. 이후 벽화의 파손을 막기 위해 떨어져 나간 부분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처리하고 균열이 간 부위는 고착시키는 것까지가 한 교수가 하게 될 보존처리과정의 전부다.

"벽화의 보존처리는 '최소한의 수명연장'입니다. 흔히 보존처리라고 하면 새 그림처럼 만들거나 반영구적인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벽화의 상처를 치료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만 취합니다."

작품의 수명이나 재료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인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낙서를 지우거나 하는 과도한 보존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족한 기술로 무리하게 처리를 하다 손상되면 절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한 교수가 문화재 보존처리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은 1989년 이탈리아로 건너가서다. 로마 국립회화문화재보존학교에서 마스터 과정을 마친 한 교수는 그곳에서 문화재 보존기술뿐 아니라 문화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까지 배우게 됐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천지창조'가 9년에 걸친 복원작업 끝에 본래의 색채와 형태를 되찾는 것을 바라보던 그는 한국 사찰의 벽화를 떠올리며 '내 손으로 벽화들을 되살리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지만 6년여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수많은 벽에 부딪쳤다. 자신이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벽화의 재료와 기온·습도 차가 큰 날씨, 전문인력 부족, 벽화에 대한 낮은 가치인식…. 하지만 주말마다 그를 현장으로 내몬 것은 일종의 사명감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던 그에게 1995년 마침내 구 총독부 건물과 구 전통공예관에 그려진 일본 근대미술가들의 천장화와 벽화 보존처리 작업 의뢰가 들어왔다. 이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벽화와 부안 내소사 후불벽화인 백의관음, 김해 은하사 시왕전 벽화 등의 보존처리가 계속해서 맡겨졌다.

그는 벽화가 벽을 장식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당대의 그림을 통해 그 시대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란이 빈번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자체가 불타버리기 일쑤였고,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천년 이상 이어져 오며 불전을 장엄했던 화려하고 우수한 불교벽화들이 소실됐다. 현재 남아 있는 벽화는 고려시대에 그려진 부석사조사당벽화와 무위사와 봉정사에 남아 있는 벽화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벽화의 제작기법 자체도 단절됐고, 벽화를 단청의 일부로 치부하는 등 그 위상도 낮아졌다.

5년째 사찰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한 교수 역시 이 점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문화재보호 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여전히 사찰 벽화를 우리 민족이 남긴 문화유산이 아니라 '종교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교수가 조사한 전국 43개 사찰 전각의 벽화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조금씩 훼손돼 가고 있다. "우리는 문화유산의 최종 상속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강조하는 한 교수는 일반 사찰에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나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장엄과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탱화와 달리 인간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그려진 벽화는 곧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예술작품'이다. 때문에 사찰벽화를 보존처리하는 이들이야말로 벽을 통해 세월과 대화를 나누는 '장인'이자 '학자'이고 '예술가'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월 초순, 현재 진행 중인 부석사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가 끝나면 한 교수는 무위사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 제1313호)의 보존처리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몇 달 씩 이어지는 현장 작업이 벅차다고는 하지만 그에게서 문화재 보존처리기술을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어엿한 '전문가'로 성장할 때 까지 그의 현장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영주=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한경순 교수(왼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보존처리작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화수(29), 김호정(25), 이태종(29) 씨.(왼쪽부터)

"문화재의 아픈 곳을 직접 고쳐주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이들은 "순간적인 실수로 국보에 손상을 입히지나 않을까 매순간 긴장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릴레이 수행일기 〈上〉



박병곤
부산일보 논설위원

나이 스물다섯이던 지난 79년 언론사에 입사해 부마항쟁, 10·26사태, 12·12쿠데타, 광주항쟁, 5·6공 시절을 기자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88년 멋모르고 노조운동에 참여해 편집권 독립을 위한 언론사 최초의 파업에 휩쓸렸고 91년부터 한 해동안 노조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선 기자, 차장을 거쳐 부장, 부국장을 거쳤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술잔을 기울이며 비분강개하기도 했고 노동운동만이 언론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으며 특종 낙종에 일희일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 마흔둘이던 지난 96년, 문득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도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와 다를 것 없는 삶이 아닌가. 나이 마흔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한치 앞도

보람있는 일 위해 불교공부 시작
108배 회향하고 환희심 가득

모른채 불만 보면 몰려드는 부나비와 다름없는 존재가 아닌가.

한 선배에게 "보람있는 공부하러 다닙시다"고 제의했다. 처음엔 서예를 배우려 했으나 이왕이면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불교공부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96년 1월 직장 인근의 부산불교교육원 입문자 과정에 등록했다. 어린 시절 초파일이나 동짓날 절에 다니기도 했으며, 조부모님 49재를 절에서 모시기도 했고, 결혼 후 안사람의 강권에 못이겨 법회에 참석한 적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른채 허송세월한 처지였다.

입학식날 회주 대성스님(김해 은하사 주지)의 법문은 몹시 어려웠으나, 일대사를 해결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대목에서 마치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해 3월 초하루, 양산 원동의 신흥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난생 처음 철야정진을 했다. 보물로 지정된 유서깊은 대광전에서 1080배 기도를 올릴 때 허리가 끊어지는듯 했지만 회향했을 때의 환희심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새벽예불 땐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고개가 숙여져도 찬공기를 가르고 들려오는 범종, 법고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21세기 인류문명은 동양의 정신문화에 의지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불교가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지 영규스님의 법문에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던지. 그날 이후 신흥사는 우리 가족의 귀의처가 됐다. 그해 4월 수계식에서 대성스님으로부터 도일(道日)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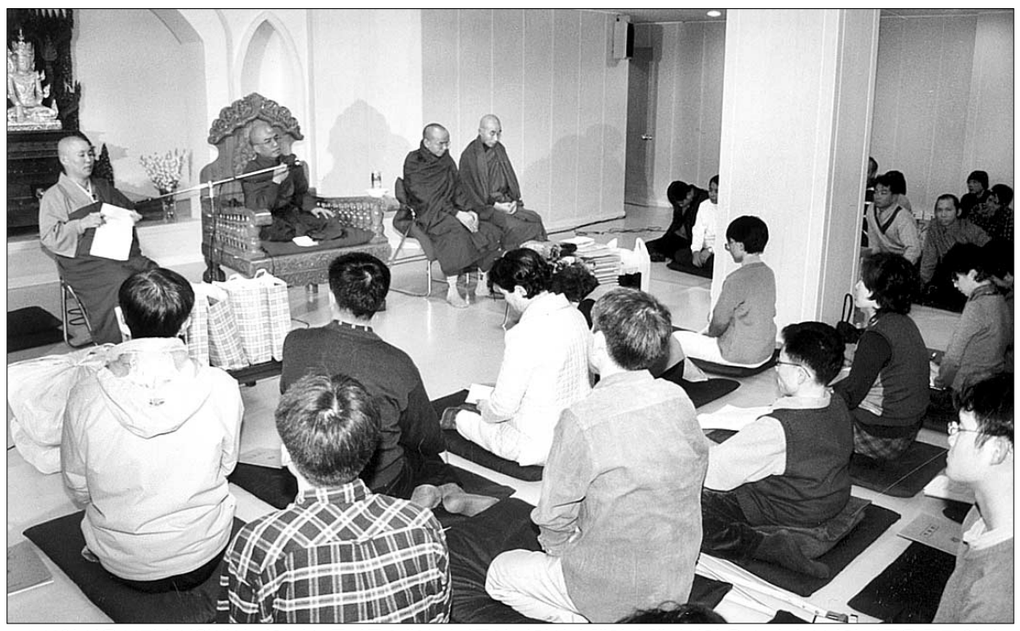
이후 약 3년동안 수행자, 여래사 과정을 거치면서 <신심명>, <금강경> <육조단경>, <금강경오가해>를 비롯, <초발심자경문>, <보현행원품>, <선문촬요> 등을 공부하게 되었다.

교육원 재학중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여러 도반들과 함께 백양사를 찾아 서옹 큰스님의 법문을 들은 일과 해인사 원당암 선방에서 혜암 큰스님을 친견한 일이다. 서옹 스님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치 죄수가 탈옥하듯이, 육상 선수가 100미터 달리기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하라고 당부하셨다. (계속)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보리수선원 '마음챙김'

"자아에 대한 착각 벗어 나면 자유"



◇12일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미얀마 노동자등 3백여 불자들이 마하시 수행처 수행법사인 우 소다나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호흡·行禪 등 적절한 배합, 지루함 덜어
투명한 재정·자율적 보시 운영 특징

"나모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쌈 붓다싸(모든 번뇌를 떠나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 스님) 법당.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와 근로자 40여명 등 300여 불자가 미얀마에서 온 우 소다나(마하시수행처 수행법사) 스님의 법문을 듣기에 앞서, 삼귀의례를 올리고 있었다.

우 소다나 스님은 이날 법라 스님의 통역으로 <삿띠 숫타(sati-stutta; 念經)>의 비얀마 천인(天人)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우 소다나 스님은 '사마타 수행으로 오욕락의 탐착을 끊어 천상에 태어나 오래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천인의 견해에 대해, '몸과 마음의 관찰을 통해 사카야 디타(sakkaya ditthi; 몸이 있다는 견해 즉 我見)를 떼어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궁극의 길'이라는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며 사티파타나(satipatthana; 마음챙김, 4處)으로 경전에서는 몸, 느낌, 마음, 법(法; 생각의 대상)의 네 가지가 설해져 있다. 네 가지 대상은 간단하게 육체적인 현상(色; ruupa)과 정신적인 현상(名; naama)으로 분류된다.

마음챙김은 마음과 육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현재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것을 요구한다. 우 소다나 스님의 법문은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수행법인 사마타(Samatha: 정적, 고요, 집중)와 위빠싸나(Vipassana: 지혜, 통찰력)를 통한 마음챙김으로 무상, 고, 무아를 넘처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소다나 스님은 복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을 예로 들며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릴 것, 그리고 '마음챙김'을 통해 (몸과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릴 때 분명한 앎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빠싸나 수행의 핵심인 '마음챙김'은 호흡과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신체 각 부분과 감각 대상,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 관찰하는 수행이다. 마음챙김의 네 가지 대상(四念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수행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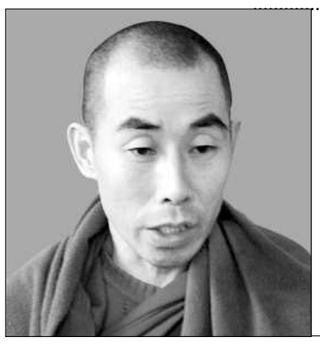
"사마타 수행을 통해 계발된 강한 정신력이 수반되었을 때, 위빠싸나는 정신과 육체의 전체적인 과정이 다만 무상과 고(苦)로 점철된 단순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위빠싸나는 '나(자아)'라는 것이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을 포함하는 번뇌와 집착, 탐욕, 증오 따위를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고통을 본질로 하는 이 세상에서, 생사의 수레바퀴인 윤회를 벗어난 자유를 얻게 되어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깨어 있는 시간 전체가 '마음챙김' 시간임을 강조하는 마하시 수행전통을 따르고 있는 보리수선원(www.borisu.or.kr)은 좌선뿐 아니라 행선(行禪), 호흡수련 등을 적절히 배합해 지루함을 덜어주기 때문에 찾는 수행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붓다락키타 스님은 1년 365일 24시간동안 내내 문을 열어 놓은 채 수시로 법문을 하고 매일 상담(인터뷰)을 하며, 경전공부도 1주일에 한 번씩 지도하고 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날 포살법회를 열어 참회와 발원을 이끌고 있다.

선원의 재정적 운영은 완전히 공개되고 회비가 없으며 신도들의 자율적인 보시로만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보리수선원의 2월 집중수행은 2월 9~15일 및 16~22일, 초보자 수행은 2월 3~14일(낮반 오전 11시, 저녁반 저녁 7시30분) 진행된다. (02)517-284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

"바른 견해 갖고 사마타·위빠싸나 병행을"

"수행자는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로써 정견(正見)을 가진 다음 사마타와 위빠싸나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보리수선원 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은 불교 초심자들은 우선 경전공부나 율장, 경장을 통해 바른 이해를 갖춘 다음 삼학(戒, 定, 慧)과 팔정도(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를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지혜를 얻는 과정이 사마타(止)와 위빠싸나(觀) 수행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관이다.

"사마타는 어느 한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여 번뇌나 망념을 막는 수행입니다. 근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들뜬 현대인에게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위빠싸나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를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아는 것입니다."

수행 캘린더

■법화삼부경 입문=전남 영광 법화경교육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법화삼부경 입문 강좌를 연다. 무량의경(無量義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 등 한역본 법화부 경전을 한자 한자씩 음(音)과 훈(訓)을 찾아가면서 교육한다. (061)353-9121

■겨울 참선수련=경남 창원 서원사는 1월 21~23일 겨울 참선수련회를 연다. 매주 토~일요일은 주말 수련회를 열어 참선 실수, 기공 및 명상 수련, 불교교리, 참선법문, 다도, 포행(낙동강변 따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5)291-6405

■선도회 참선법회=선도회는 지부별로 정기 참선법회를 연다. 목동법회(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7시 30분, 02-658-6090), 정릉법회(매주 일요일 오후 2시, 02-913-3746), 광주법회(매주 토요일 오후 3시, 011-619-1346), 신촌법회(매주 화요일 오전 7시, 02-705-8453), 인천법회(매주 월요일 오후 7시, 011-741-0132), 대전법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042-868-5232), 성남법회(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031-711-8112)

■금강경 법문=문사수 대전법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 정토사 회주 한탑 스님의 '금강경 법문' 법회를 연다. 매주 수요일 새벽 4시 30분 정해 법사의 무량수경 강좌도 열린다. (042)485-8111

■나눔과 이해의 장=문경 정토수련원은 2월 12일~16일(4박 5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제4차 나눔과 이해의 장을 연다. 중3~고3 대상으로 선착순 15명 접수. (02)587-8994

■주말 위빠싸나 수련=호두마을은 1월24일~26일(2 박3일) 묘원법사의 지도로 '법념처관' 수련회를 연다. 법념처란 생각의 대상인 법(法)을 관찰하는 위빠싸나 수행법이다.

■봉인사 위빠싸나 수련=남양주 봉인사는 1월 20~25일, 2월 10~15일, 2월 24일~3월1일 5박6일간의 위빠싸나 수련회를 지훈 스님의 지도로 연다. (031)574-5585

■철야 참선정진=화계사 선우회는 매주 토~일요일 철야 참선법회를 연다. (02)900-4326

아픈 이웃 찾아가는 '약사보살들'



◇12일 종묘 팔각정 앞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투약 현장.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자 약을 받기 위해 모여든 노인과 불우이웃들로 100미터가 넘는 줄이 이어졌다.

바라밀현장

불자약사보리회

'무료 투약 7만명 달성' 성과 거둬

서울역에 노숙자진료 센터도 운영

"무릎이 자꾸 시리고 쑤셔. 골다공증이야."

"할아버지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할멈이 아프지. 잘 걷지를 못해. 알아서 잘 해줘."

한 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차례가 된 김명철 할아버지(82)가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투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일년 째 걸음걸이가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골다공증 약을 받지만, 여전히 김 할아버지는 자기가 환자라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불자 약사들은 먼저 김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려 약을 챙겨준다.

서울 종묘 팔각정 앞. 매달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불자약사보리회의 '실직자 및 쪽방 거주자, 불우노인 무료투약' 봉사 현장이다. 98년 8월,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불자 약사들은 5년째 이곳에서 '약사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로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거리로 나앉은 실업자와 노숙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시작된 무료투약 행사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매번 4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전달받았고 그 액수는 매해 1억 2천만을 넘는다. 감기에 걸려도 해열제 하나 사기 힘든 이웃들을 돕겠다는 서원은 지난해 12월까지 '무료투약 7만명 달성'이란 성과까지 거두었다.

이러한 불자약사들의 자비행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뜻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98년 12월에는 의정부 북부지검 김형조 판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밝혔고 99년 5월에는 고려수지침협회 회원들이 수지침 봉사를 함께 할 뜻을 건네 왔다.

2000년에는 무료 투약봉사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에 응모해 예산지원 2000만원도 받아냈다.

약사보리회원들의 보살행은 지난해에 더욱 거세게 불붙기 시작했다. 2월에 시작한 서울 을지로 3가 노숙자 무료투약 봉사를 계기로 4월에는 서울역 노숙자진료센터를 개소했다. 매주 월 · 화요일 저녁마다 사회의 관심 밖에 머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숙자를 향해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창립 때부터 총무를 맡고 있는 유효순 약사는 "IMF 관리체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이웃들이 많다"며 "이들을 도와 일을 하다보면 남을 돕는 일 자체가 나의 수행을 깊게 하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종묘,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10시 서울역 파출소 앞,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6시 경기도 금촌 자비정사에서 무료 투약봉사를 하고 있다. 문의:(02)959-0082, 후원계좌:16704-0596413(서울은행, 예금주 유효순)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자약사보리회 **백경숙** 회장

"나누면 주변이 청정해져요"

지난해 7월 불자약사보리회 3대 회장에 취임한 백경숙 약사(52)는 "보시행을 하다보니 이 일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번뇌를 털어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한다. 서울 제기동에서 지혜당이란 약국을 운영하는 백 회장은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할 때는 늘 괴롭기만 했는데 남과 함께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 주변이 청정해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깨달음이 불자약사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어, 회원들은 불우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뭐든지 자기일처럼 발로 뛰면서도 전혀 상을 내세우지 않는것이 고맙다고 덧붙인다.

백 회장은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가는 것 같다"며 "올해 내로 불자약사보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후원회의 구성이나 뜻있는 의료봉사단체와의 연대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心 마음비추기

반연심 · 식정 자체가 불성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수행서적 한 권을 들고 찾아왔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써내려간 글인데 온통 남들은 다 잘못되었고 자기만 옳다는 주장이다.

수행자끼리 법이 삿되거나 어긋났을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을 가하거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편협되어 있고 수행인들 가운데에는 이와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이 없지 않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내용은 <능엄경>에 나오는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반연심(攀緣心)과 식정(識精)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반연심이란 거울속 그림자처럼 대상을 끌어들여 만든 중생이 평소 쓰고 있는 '나' 라고 여기는 마음이고, 식정은 그 반연심이 모이고 쌓여 이루어진 의식(識)의 속성인 순수한 성품(精)을 말한다. 저자는 그 책에서 <능엄경>을 해석한 운허 스님이나 심재열 법사님 같은 분은 식정을 불성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라 했다.

저자는 불성이란 반연심이나 식정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므로 불성을 보려면 반연심이나 식정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되는데, 원효나 성철 스님등도 이 이치를 몰랐으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우선 식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식정은 글자 그래도 '식' 즉, 마음이 지니고 있는 '정' 으로, 여기서의 정은 식이 지니고 있는 밝고 뚜렷한 정밀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식정이란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 그대로의 성질이 정밀하다는 말로, 부처의 성질과 다름이 없다고 이해한다. 즉, 반연심이나 식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연심과 식이 지니고 있는 성질 자체가 불성이라는 말이다.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 중에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불성을 마음 안에 존재하는 또다른 특별한 무엇인줄 잘못 알고 있는 수가 있다.

<능엄경>에는 비단 손수건을 꼬아 매듭을 만들었을 때에 매듭만 풀면 매듭 그대로가 비단 손수건이 된다고 했다. 이는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부터 둘이 아닌데, 마음이 묶이고 묶이지 않고의 차별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은 더럽고 어두운 것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청정 그 자체라 본질은 부처와 다름이 없다. <능엄경>에서의 식정은 바로 이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식정 따로, 불성 따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증엄 스님 (上)

(대만 자제공덕회 회주)

대만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스님



◇자체공덕회가 태동된 정사정사.

자비로운 눈빛에 중생구제의 굳은 서원을 담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회주 증엄(證嚴) 스님.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일컬어지며 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증엄 스님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큰 서원으로 고난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펼쳐 만세에 빛나는 구제사업을 일으켰다. 1966년 증엄 스님의 지도아래 30여 신도가 조직한 '불교극난(佛敎克難) 자제공덕회'가 37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400백만 명의 회원과 5개 병원, 종합대학, 방송국 등 산하시설 직원 수만 2천여 명의 조직을 갖춘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업적은 자신만을 위한 소아(小我)를 버리고 인류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대아(大我)를 가진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증엄 스님의 원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2개월전에 출생한 증엄 스님은 어려서부터 보살의 길을 걸을 만한 자비심을 보였다. 15세 때 어머니가 위장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만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증엄 스님은 "제 수명이 12년 줄더라도 어머니가 그만큼 오래 살길 바랍니다"고 기도했다.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음인지, 모친의 병은 기적처럼 나아 수술이 필요없이 약을 먹고 완치됐다. 그러나 5년후 이번에는 부친이 뇌중풍으로 갑자기 사망, 스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이때 부친의 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저곳의 절을 찾게 된 것이 불법(佛法)과의 인연을 맺게한 원인이 됐다. 뒷날 자운사의 수도(修道) 스님의 지도아래 증엄 스님은 생명의 근원과 인간 행복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해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회로 확대해 천하의 중생을 사랑해야 한다."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충만한 스님은 이후 몇 번의 삭발 출가가 좌절되자 조용히 수행할 곳을 찾아 대만의 북부, 중부, 동부 등으로 만행하다 마지막에는 화련현(花蓮縣) 수림향(秀林鄕) 아래 작은 절인 보명사(普明寺)에 머물게 된다.

1963년 2월, 증엄 스님은 타이뻬이시 임제사에서 열린 수계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은사가 없어 명부에 등록할 수 없었다. 수계식이 열리기 얼마 전 증엄 스님은 우연히 <태허(太虛) 대사 전집>을 사서 읽은 인연으로 인순(印順; '인간불교'를 제창한 대만 불교계의 최고 원로) 대사를 뵙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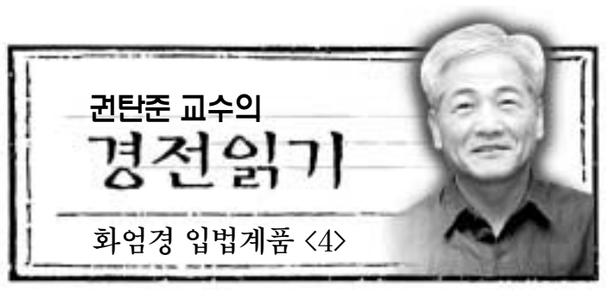
공경심으로 찾아뵈니 인순 대사는 어렵지 않게 은사가 되어주겠다고 응답했다. 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순 대사는 증엄 스님을 위해 간단한 법문을 설했다. "너와 나의 인연이 수승(殊勝)하구나. 이왕 출가를 했으니, 매 순간 불교와 중생을 위해 살아야 하느니라." (계속)

소아 아닌 대아라야 무슨 일이든 성취

여성도 생명·사회 구제 적극 나서야

김재경 기자

◇증엄 스님



입법계품의 이념(理念) ②

보현행, 부처님 대신 중생구제 실현
끊임없이 대비이타 서원 일으켜야

입법계품은 내용 전체가 보현행을 설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을 상수로 하는 500인의 보살마하살들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모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하여 경계가 걸림이 없으니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라 하고 있다. 이는 보살마하살들이 모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한 이들이란 말이며 궁극적인 보살행이 보현의 행이라는 것과 함께 이를 통해 모든 부처의 세계에 무애자재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현의 행원은 보살마하살들만이 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입법계품에서 "세존의 주위에 운집한 시방의 모든 보살과 그 권속들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서원 가운데서 나왔다"하고 있는 것 또한 보현행으로써 보살행을 대표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이다.

입법계품은 선재의 구법과정을 통하여 입법계의 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입법계의 법이 바로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리심을 발한 후에 보현행을 빨리 원만 성취하는 법을 묻자, 문수보살은 선지식을 찾아가도록 한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찾는 수행과정은 보현행의 탐구에 있고, 최후에 보현보살을 만나 그의 설법을 듣고 보현의 행원과 부사의한 해탈경계를 성취하여 마침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은 대비이타의 대승보살행인 보현행을 주목적(主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해 설한 것이라고 이해해왔지만, 그 근본정신을 살펴보면 보현행이라는 보살의 수행을 설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보살행을 가지고 부처님을 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방세계에 충만한 법신(法身)인 여래의 거룩한 덕은 보살의 삶으로 구현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현행에서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믿고 여래의 지혜와 자비에 귀의하는 것이 요청된다. 보살행은 여래의 덕을 실현해가는 것이며, 여래의 덕은 보살행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귀의(歸依)의 대상이 되는 여래의 덕은 귀의하는 보살에 모두 나타나서 보현행으로 되고, 보살은 보현행을 닦아 여래의 덕에 동참(同參)하여 그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여래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현행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행이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덕을 실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인 것이다.

보현행에서는 대비이타의 서원(誓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서원은 부처님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을 공경 찬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본받아서 일체중생을 위해 살아가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서원은 행(行)을 일으키고, 행은 서원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서원에 의해서 현실세계에서의 생활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보살행이 나오게 된다. 이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며, 보살은 서원을 끊임없이 일으켜 보살행을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드디어 법계로 들어가게 된다. 입법계품에서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찬탄하고 또한 원행(願行)을 강조하는 것은 보현보살의 원행을 보살행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현행을 흔히 보현행원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선재동자의 구법과정이 문수보살에서 시작해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무리되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가 뒷받침된 올바른 신앙에 의해 진실의 세계를 확인하고, 그 세계를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반야의 지혜에 의한 보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해 나아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깨달음이란 것이 현실세계 속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53인 선지식들이 설하는 법은 소승불교인처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자각해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현실의 중생세계를 떠나서 일체의 번뇌를 끊어야 얻는 해탈 열반을 설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보현행원을 실천하여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요, 번뇌를 끊지 않고 현실생활 속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설하니 그야말로 부사의한 해탈경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에는 소승의 성문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를 선양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㊸

늘 한결같아라

도 닦는 이들이여! 대장부가 또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 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누구냐? 이것을 붙잡았으면 곧 그대로 작용할 뿐 문자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하니,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뜻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꺼릴 법이 없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데, 흐르는 그곳이 참으로 아득하구나. 흐름을 따라 본성을 확인한다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하였다.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어야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어라. 시간은 늘 바로 지금일 뿐이고, 장소는 늘 여기일 뿐이며, 행동은 늘 지금 이 행동이고, 항상 지금 눈앞을 바라보고 있고, 항상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며, 항상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항상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지금 이것에서 떠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지금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생각에 휩싸여서 과거 · 현재 · 미래와 이곳 ·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보이는 색깔과 모양에 속박되어서 색깔과 모양을 따라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들리는 소리와 말에 구속되어서 소리와 말에 끌려 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몸의 모양과 느낌에 매달려서 몸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과 색깔과 모양과 소리와 말과 몸에 속박되어 끌려 다닌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지금 이것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벗어남이란 허망한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과 같으며, 몸은 여기 누워 있으면서 과거의 온갖 장소를 돌아다니는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허망한 환상에 쌓여 있으므로 매 순간 순간이 진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여도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 다른 참된 것을 찾아서 늘 헤매고 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다.

망상에 쌓여서 망상을 따르는 삶이 바로 허망한 삶이요, 진실을 알아서 매 순간 순간 진실에서 벗어남이 없는 삶이 바로 참된 삶이다. 진실한 삶을 살려면 진실에 머물러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진실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보고 있으며, 듣고 있으며, 붙잡고 있으며, 걷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으며, 느끼고 있으며, 욕망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으며, 읽고 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위에 항상 나타나서 변함이 없는 이것을 확인하라. 마치 형형색색의 사물이 나타나 변화할 때에 변함없이 빛이 그 위에 있듯이, 온갖 모양의 물결이 나타났다 사라질 때 변함없이 물이 그 자리에 있듯이, 온갖 경험의 세계가 나타나 사라지는 변화 속에서 이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며, 참된 나 자신이다. 이 진실한 나 자신이 분명하여 흔들림이 없다면, 세상의 온갖 풍파가 모두 닥쳐 오더라도 나는 늘 그대로 변함없을 뿐이다.

자,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변함 없는 자신이 분명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어 의심이 없습니까? 늘 한결같은 자리에 흔들림 없이 있습니까?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6-456-8957(강보영) http://www.mindfree.net/



수정되는 순간부터 마음 지녀
육체 소멸돼도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12연기 법칙 유전적 영향관계 설명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맥더걸은 쥐에게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치는 실험을 하였다. 출구를 잘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쇼크를 가하여 다시 제 길을 가도록 유도하였다. 처음 훈련에 참가한 쥐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떤 쥐는 백 번까지 실수를 하였다.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미로를 빠져 나오는 법을 빨리 습득하였고, 다음 세대는 더 빨리 습득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세대별로 실수의 평수치를 조사한 결과, 맨 처음 세대는 평균 250회의 실수를 하였고, 22번째 세대는 평균 22회의 실수를 하였다. 맥더걸은 이것은 DNA 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원숭이와 새에서도 관찰된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삼합(三合)의 원리에 의하여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것을 불교의 12 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셨다. 먼저 죽음 후의 과정을 관찰한 결과, 육체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무명(無明)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무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을 때의 습(習)이 발동하여 다시 몸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 즉 행(行)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무명(無明)은 행(行)을 낳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명이 행(行)의 의지에 의하여 제정신을 가다듬어 새 출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식(識) 혹은 중유(中有)라고 하며 따라서 12 연기에서는 행(行)은 식(識)을 낳는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의 마음인 중유(中有), 즉 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하나로 합칠 때 함께 합쳐서 수정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태가 성립되면 난자와 정자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진 것은 태아의 육체가 되고, 식(識)은 태아의 마음이 된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식은 명색(名色)을 낳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색(名色)의 명(名)은 마음을 말하여, 색(色)은 물질(육체)을 말한다. 명색으로 시작된 태아는 열 달 동안 자궁 속에서 성장하면서 눈, 귀, 코, 혀, 피부 및 뇌 등 육처(六處)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명색은 육처를 낳는다고 말한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1~2세가 되면 육처(六處),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그 본성에 의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된다. 이 접촉을 불교에서는 촉(觸)이라 하며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육처(六處)는 촉(觸)을 낳는다고 말한다. 아기가 3~5세가 되면 자신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외부 세계의 현상을 접촉(觸)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지각, 즉 수(受)라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은 개체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즉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 즐거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촉(觸)은 수(受)를 낳는다고 말한다. (계속)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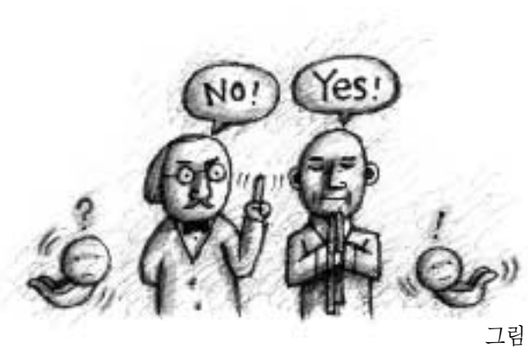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화)

"거문고 줄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라"

〈출전 : 증일아함경 제13:지주품 3:2-612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광화문의 풍선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이어야…

촛불보살께 차 공양드리러 가는 선재의 발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었다. 풍선이었다. 광화문의 촛불이 어느 틈에 초록색 풍선으로 바뀌어 태극기와 성조기와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녹색 풍선은 말한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니 미군의 철수를 반대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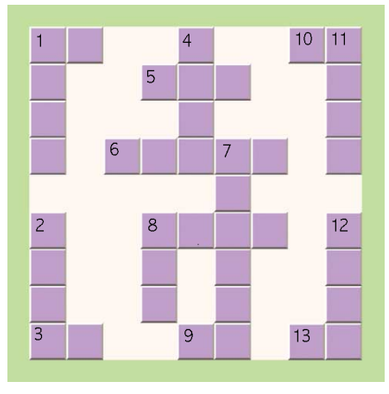
특정 종교인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6·25 동란 때 16개 UN군을 보내 침략군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중에도 안보의식이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반미를 부추기는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죄를 회개하는 새 운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선재는 이들이 선재가 가려는 길과는 참으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선재는 그저 여동생 같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조용히' 하고 있을 뿐인데, 초록색 풍선은 선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며 선재를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가려는 길이 다르니 이들을 외도(外道)라고 불러야겠다(邪道라고까지는 말하지 말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재가 외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도는 간단했다. '연기로 설명되는 불교의 정법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치를 따르는 것이 불교다. 정법이란 곧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법은 사실을 비틀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정법이 아닌 것, 상식이 아닌 것은 모두 외도이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하는 것, 그 또한 외도이다. 그 속엔 분명 나쁜 의도가 있다고 선재는 믿는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법과 다른 것'은 언제나 틀린 것이다. 선재는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상식의 소중함을 새겨본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일종일파를 개설한 개조. 열반하신 스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 3. 오전 9시부터 11시를 가리키는 말. 5. 수미산을 번역한 말로 안명유산이라고도 함. 6. 고려시대 만든 대장경으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음. 8. 들판에 임시로 설법하는 자리를 만든 것. 지금은 시골벽적한 곳을 가리킴. 9. 경전을 보고 읽는 것을 말함. 10.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벗. 13. 법문을 듣는 사람 또는 그 법문에 적당한 근기를 갖춘 사람. 기○.

〈404호「교리퍼즐」정답〉



세로 1. 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는 의식 2. 고려 충렬왕때 일연스님이 지은 역사책 4. ○○운대. 5분향례에 나오는 용어로 광명처럼 두루 널리 뒤덮은 모습. 7. 장자법지의 처와 그의 하인을 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전. 장자법지처○. 8. 야마○. 욕계 6천의 제3천. 11.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말. 12. 부처님의 어머니 이름.

원하는 책 앉아서 산다

책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기에 최고의 상품이다. 가치가 검증된 상품인 책은 형태가 규격화되어 포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반품 문제 또한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전 국민의 31%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요즘. 인터넷에서 책 사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일상사가 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올 시장전망은…

지난해부터 약진을 시작한 인터넷 서점들의 활약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서적 시장규모는 2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0% 정도인 2천4백억원을 인터넷 서점들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서점은 80여개, 이 가운데 실제 기업적 자생력을 갖춘 곳은 10개사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예스24(www.yes24.com), 인터넷교보(www.kyobo.co.kr), 와우북(www.wowbook.com), 알라딘(www.aladdin.co.kr), 모닝365(www. morning365.com)등 상위 5개사들이 평균 10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8년부터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인터넷서점들은 그동안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세라면 올해 상반기내에 흑자전환이 가능하고, 머지않아 인터넷 서점들이 도서 구매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싸고 편하게'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을 받아보기까지 2~3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편리한 검색과 대폭적인 가격할인으로 인터넷 서점을 찾은 이들이 날로 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27일부터 실시되는 도서정가제로 발간 1년 이내 도서 할인율이 10%로 제한됨에 따라 무더기 할인 공세를 퍼부었던 인터넷 서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출판시장에서 발간 1년 미만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시행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쇄출판 관계법의 변화는 오프라인 서점의 무력화를 예방하고, 대중적 인기도에 편승한 출판과 독서문화의 퇴보를 염려한 측면이 크다.

할인·편리성 등으로 매출 꾸준히 늘어
불교서점 틈새시장 마케팅에 주력

불교계는 인터넷 여시아문닷컴(www.yosiamun.com)과 붓다북(www. buddhabook.co.kr)이 온라인상에서 불서를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여시아문의 경우 2001년~2002년 2년간 1만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 월 평균 200여건의 인터넷 주문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인터넷 서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열악하지만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반 인터넷 서점들이 가벼운 읽을거리 판매에 중점을 둔 대중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면, 인터넷 불교서점은 이들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전문서인 불교서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이다.

"인터넷 여시아문을 통해 판매되는 책 대부분이 선 관련서, 경전류, 입문서 등이다. 이용자 또한 다양한데, 스님 이용자가 의외로 많고 지방에 사는 불자와 해외불자들도 있다"는 여시아문 조동규 부장은 "불교계는 아직 인터넷 인구가 작다는 점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일반 인터넷 서점이 다루지 못하는 전문 불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잠재 시장이다"고 말한다.

불교전문서점인 오프라인 여시아문과 동시에 운영되는 인터넷 여시아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전문 인터넷 불교서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접근하기 쉽게 개편하고, 다양한 불서 정보와 마켓팅 전략을 펼치는 등 전문화와 틈새공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싸고 편하게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서점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어디로… 나를 찾는 여행

'꼬마성자 몽몽'
이용범 지음 / 김일화 그림
생각의 나무 / 8천5백원



"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람들은 뭔가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붙이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내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하긴 스님한테는 모든 게 '몽'이었으니까."

자신을 돌봐주던 스님이 돌아가시자 절을 나와 여행길에 오른 몽몽(夢夢).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몽몽은 여행에서 속임수로 동물을 잡아 서커스단에 파는 마술사와 20년 동안 명상에 잠긴 사람, 날마다 경쟁적으로 자물쇠와 열쇠를 만드는 두 노인, 술 마시는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나를 잃어버렸는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몽몽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말에, 생각에, 꿈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명쾌한 진리를 엿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작가 자신의 삶과 문학 이야기



'누구나 홀로 선 나무'
조정래 지음
문학동네 / 9천5백원

<누구나 홀로 선 나무>는 <태백산맥>에서 시작해 <아리랑> <한강>으로 이어진, 조정래라는 큰 강줄기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글이다.

등단 33년, 반평생을 글감옥의 수인(囚人)으로 살아온 작가가 털어놓는 그의 문학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산문집은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한 작가의 염려가 나타나는 장이다. 2부 나의 사랑 재면이에서는 손주의 재롱에 어쩔 줄 몰라하는 할아버지로서의 작가 자신을, 3부 작가의 편지에서는 문학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독자들에게 자상하면서도 냉철하게 답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다.

4부 왜 문학을 하는가는 작가로서의 조정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장이다. '누명(陋名)'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하던 당시의 상황부터, <태백산맥>을 쓰게 된 배경, 또 작품을 쓰면서 겪어야 했던 작가적 고뇌와 외부의 압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5부 문학의 그림자에서는 작가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조정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만해 스님과 승려출신 아버지 철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의 문학의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만날 수 있다.

산문집 2권

6부 길과 함께한 생각들은 작품을 집필하기 위한 취재여행에 대한 기록이며, 7부 역사 만들기는 제목 그대로 역사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8부에서는 자신의 작품과 아내 김초혜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 다양한 질문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확한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삶·인생·사랑… 영혼의 메시지



'왈패이야기'
오세영 지음
화남 / 9천원

<왈패 이야기>는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 만해상 등을 수상한 한국 문단의 중진이자,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 오세영 시인의 산문집이다.

오 시인은 68년 '잠깨는 추상'으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적멸의 불빛> <신의 하늘에도 어둠은 있다> <무명연시> <반란하는 빛> 등 11권의 시집과 <현대시와 실천비평> <변현기의 한국 현대시> 등 10여권의 비평집을 펴냈으며, 그간 미국과 독일, 일본과 멕시코 등지에서 대표시집이 출간되는 등 35년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서정성과 모더니즘의 창조적 조화, 동양적 사유와 철학의 세계를 깊이 모색함으로써 한국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산문집은 문단 데뷔 35주년을 맞는 오 시인의 삶과 인생, 사랑, 그리고 대자연과의 아름다운 친화를 다룬 총 53편의 산문이 모두 4부로 나뉘어져 실려 있다.

제1부 나의 동안거에는 투명한 시심으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을 담아낸 13편의 산문이 실려있다.

제2부 눈오는 밤의 초콜릿에는 작가의 삶의 이력에 담긴 여러 추억담을 통해 인간과 인생에 대한 작가의 다함없는 애정과 생의 겸허함, 따뜻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제3부 대화를 튼다는 것에는 우리 문화, 우리 것의 우수성과 더불어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으며, 제4부 내가 입은 세 가지 은혜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긍심과 은혜의 마음, 잘못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의 정신 등 시인의 마음을 보여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3	서장공부	김태완	여시아문
4	참 좋은 이야기	법정 스님	동쪽나라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달라이라마	김영사
6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7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8	평화로움	틱낫한	열림원
9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묵·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스님	불광출판부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전통차 뿌리·정신 찾아야죠

인터뷰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차의 참모습'낸 **지허스님**

"일제시대 이후 맥이 끊기다시피 한 우리 전통차 문화를 바로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50년 넘게 야생차밭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왜곡된 우리 차 문화의 문제점과 전통차를 되살려내고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통 차의 맥을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는 순천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61·사진)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 차의 참모습-지허스님의 차!>(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김영사 공동 출간, 1만 2천9백원)를 펴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에서 지허 스님은 우리 전통 차의 뿌리와 정신을 고스란히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녹차는 일본의 차입니다. 이걸 우리 전통 차인 양 착각하며 마시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없이 차 문화에 상업성이 개입돼 빚은 결과입니다. 이 녹차가 사무라이 문화의 하나인 '다도'라는 허울을 쓰고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는 우려할 만 합니다."

지허 스님은 오늘 우리 차 문화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마시는 녹차가 일본의 것이라면 대체 우리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전통 차는 차 나무와 제조방법 등에서부터 일본 중국의 차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마디로 녹차는 찐 차, 중국 차는 발효차입니다. 우리 차는 찻잎을 구워서(덖어서) 만드는 덖음차예요. 맛과 향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녹차는 풋내·비린내를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서 형성된 차이고, 기름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향이 강한 차를 선호합니다. 우리 차는 강한 맛이나 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은은하고 깊은 향과 맛이 우리 차의 특징입니다."

우리 차는 볶아 만드는 덖음차
은은한 향·깊은 맛이 특징
순수 자생차 보존·보급 주력

시판되는 녹차·다도는 日本式

우리 다도에 대해서도 지허 스님은 명쾌하게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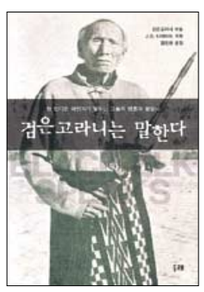
"일부 차 모임이나 강좌 등에서 행해지는 다도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우리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 짙게 하고, 한복 곱게 차려입고, 허리 굽혀 절하며 마시는 다도는 국적없는 몰지각한 행태입니다. 초의선사는 차 마시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하며, 마실 때 맑고 깨끗한 생각으로 마셔라. 그러면 다도는 다 했느니라'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 다도의 핵심을 말하라면 '누워서만 마시지 말라'라고 하겠습니다."

지허 스님은 3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선암사 무우전에서 다담회를 열고 있다. 지허 스님이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면서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지허 스님은 2001년 11월 우리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를 결성했다. 영화 '만다라' 촬영 때 지허 스님과 차 한잔 나눈 인연으로 우리 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임권택 감독이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영화 '취화선'에서 천재화가 장승업 대역으로 출연했던 한국화가 김선두교수(중앙대 한국화학과), 디자이너 안상수 씨 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다담회에서 지허스님이 직접 이야기했던 우리 차에 대한 모든 것을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녹차를 흔히 우전·세작·중작·대작 등 잎의 크기와 따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가격 또한 달리 매기는 풍토를 우리 전통 차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신 대령이 처음으로 차 씨를 가져와 심었다는 하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낱낱이 밝히고 있다. 특히 불교와 차와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16대째 선맥과 다맥이 이어져오고 있는 선암사의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 다례 의식도 소개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차나무의 85%가 일본종입니다. 10%가 변종 자생차이고, 순수 자생차는 5%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전라도 일대에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잘 다듬어진 차밭이 아니어서, 일반인은 그것이 차밭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지요.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와 함께 순수 자생차를 보존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

검은 고라니 구술 / J.G. 니이하트 지음

두레 / 1만 2천8백원

인디언 최후 항쟁의 육성 기록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자신의 육성으로 기록된 인디언 멸망사에 대한 증언이자 현대문명, 특히 미국의 문명 세계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장이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시인 J.G. 니이하트가 인디언 예언자 검은 고라니와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진 뒤 쓴 인디언 자신의 육성에 의한 인디언 최후의 항쟁 기록이다.

백인들의 무자비한 살륙·파괴
수우족 인디언 예언자 뼈아픈 증언

오그랄라 수우족이라면 인디언들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용맹스럽게 맨몸으로 저항했던 부족인데, 이 책의 주인공인 검은 고라니(Black Elk 1863~1950)는 그 부족의 예언자였으며 병자들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술사였다.

이 책은 어린시절 부족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받았으나 끝내 그 계시를 이루지 못한 한 인디언 예언자의 뼈아픈 고백록이다.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인디언이 가졌던 훌륭한 문화와 위대한 꿈이 백인들의 침략과 정복에 의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종결돼 버렸는가를 이야기한 역사적인 증언이다.

탐욕에 가득찬 백인들이 거짓말과 무자비한 살육으로 어떻게 인디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파괴했으며, 마침내 운디드니에서 처참한 학살을 저질러 인디언의 역사를 끝나게 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검은 고라니는 위대한 추장이나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예언자였고, 병을 치료하는 주술사였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인디언의 영적인 생활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또한 이 책에는 인디언의 눈에 비친 백인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위르겐 하버마스 / 장은주 옮김

나남출판 / 1만원

생명공학기술 활용은 어디까지?

만약 키를 크게 할 수 있고 몸매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약이나 의술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키나 몸매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하는 꿈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의 책으로 알려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공학이란 인간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공학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야심찬 학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적 운에 맡겨졌던 인간의 신체나 정신능력 심지어 수명까지도 인간의 손, 특히 과학자의 합리적인 손에 의해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생명공학 연구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유토피아를 꿈꾼다. 과학은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논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둘씩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과학 역시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인류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다. 최근 발간된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라는 하버마스의 책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 하나는 이런 생명공학기술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좋은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다. 하버마스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와 배아연구를 실례로 들어 이 두 물음을 철학적으로 천착하고 있다. 이 책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철학서요 문명비평서라 말할 수 있다.

새해 들어 복제인간의 출생(?)으로 세계가 들끓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공학 육성과 맞물러 생명윤리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배아연구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쟁은 대부분 배아를 인간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런 형이상학적 접근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관이 서로 다른 다원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배아가 인간이냐 아니냐의 물음은 세계관이나 종교와 같은 형이상학의 물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윤리 관점에서 배아연구나 유전자 변형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물음을 다루고 있다.

배아가 인간이냐 아니냐의 물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배아로부터 발달한 존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이든 체세포핵이식술을 통해 만들어진 복제배아이든, 배아 연구는 그 자체로 인간의 실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갖는 생식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를 들어 치료에 혁명적 전기를 마련해줄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변형을 옹호하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자유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우생학 보편윤리로 비판
인간, 조작될 수 없는 자연발생적 존재

하버마스는 이를 자유주의적 우생학이라고 부르면서 보편윤리에 근거하여 비판한다. 인류의 보편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며, 목적적 존재이다. 이 목적적 존재의 생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이를 조작불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즉, 인간은 다른 인간에 의해서는 조작될 수 없는 자연발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평등한 존재로서 언제나 목적으로만 대우받아야 한다는 윤리원칙이 성립된다. 그런데 생명공학은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하나의 생산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지적이다. 즉, 인간은 다른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독일어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공학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물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특히 생명공학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제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김상득/ 전북대 교수·윤리학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는 생명윤리의 문제, 그중에서도 최근의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의 발전이 제기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최신작으로 2001년 6월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자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모든것은 연생연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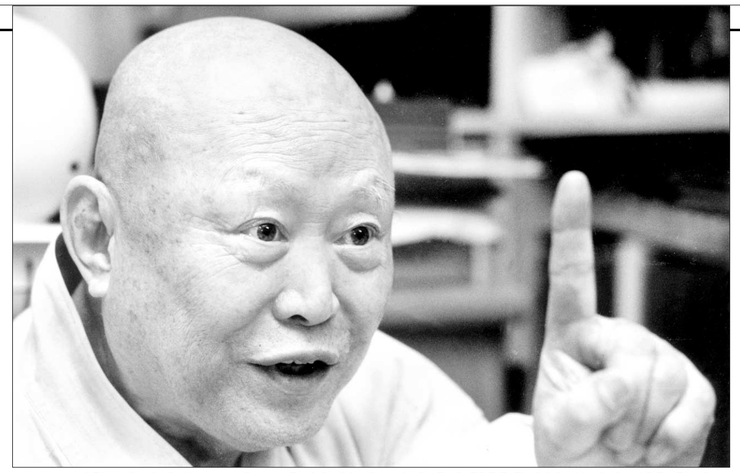
연생연멸(緣生緣滅)의 법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한다는 뜻이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복제 인간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양성 생식의 인간을 단성생식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기에 진화적 퇴보에 불과하다고.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단성생식에서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이면에는 인간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면 질병을 비롯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한 피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그러면서 복제 양 돌리를 비롯해 이제까지 시험관을 통해 세상에 탄생했던 복제 동물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혹자는 복제인간이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간을 복제하여 그의 장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 수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기에 이미 복제 인간의 탄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제 인간 복제는 기술적 차원을 벗어나 가치와 윤리의 문제로 전이되어 있다. 인간들의 이성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자쪽뿐이 아닐뒤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선용되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것은 유신론적 입장에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창조는 신의 고유 권능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러한 권능에 대한 도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신의 절대 권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양이 신의 권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진정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신이란 관념적 우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점호의 기회인 것이다. 법적인 제도를 구비하게 된다면 세상이 난리칠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인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기분은 나쁘지만 말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천운스님은 불교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교육'이란 다름아닌 '불성계발'이라고 강조하신다.

청빈·고요한 생활에서 지혜 나와
자기욕망 억제해야 남 배려 가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맑아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도 사람 탓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사회에 해만 끼치게 됩니다.

한사람 한사람 수행이 세상 맑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육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중생에게 불법을 설하신 것도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을 일치시키고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입니다. 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 교육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인성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무총장을 지낸 이종욱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겠다며 동국대에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종욱스님은 "내 상좌도 아니고 네가 세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불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월정사에서 3년간 강의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고는 3년간 그 스님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동국대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 도중 그 스님이 졸업하기 전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종욱스님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그 스님은 공산당 청년단원에 입단해 종욱스님을 잡겠다고 다녔어요. 전쟁이 끝나고 종욱스님 제자들이 그 스님을 종로경찰서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욱스님에게 그 스님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느냐고 여쭈었어요. 그런데 종욱스님은 스님 한 명을 키우는데 엄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출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셨고, 제자들이 산출비용을 올리자 "그 녀석이 승려생활을 그 만큼 했으니 거기에 맞추어 돈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을 아끼는 스님의 뜻을 크게 깨닫고 종욱스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지요.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에요. 종욱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윤리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5계가 필요합니다. 살생이나 음행, 거짓말은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 다른 나쁜 행위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돈을 번 사람은 또 그런 기회만 찾게 돼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자꾸만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욕빈하게 살아온 옛 스님네들의 정신이 오늘날에는 많이 희석됐지만 모름지기 사람은 '고요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는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욕망을 누를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나 수행이나 모두 인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가 켜켜이 쌓여있는 아무리 더러운 거름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덖다보면 밝게 되지요. 세상의 이치도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닦아 나가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수행이 모여 결국엔 세상을 밝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해야 해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스승이 바르지 않은데, 제자가 바른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빗나간 아이들을 나무랄 즐만 앞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흔히 불자들의 신행이 기복적이다 뛰다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님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왜 문제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을 하셔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았으면서도 전혀 부처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밥까지 다 해서 주었는데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악습(惡習)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절이 교리만 가르치지, 수행은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 배우는 것도 문제예요. 부처님 법 알려주고 부처노릇 하라는데 왜 못합니까. 의심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항상 의심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살고 있는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지 의심하는데 거기에 명예욕이나 재물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조주스님께서 '개유불성(狗有佛性)'이라고 하셨어요.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처가 아니라는 사람에게 부처는 없지요.

부처 노릇 하려면 욕망을 덜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문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철저하게 계 지키는 일 중요

어떤 이들은 계율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계율의 원리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계율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지만 부처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이에요. 계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음식을 음식답게 먹으라는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계율은 스스로를 경책하는 '매'입니다. 매가 무서워 피하거나 매 맞는 것이 두렵다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어요. 지암스님께서는 "인간은 본래 청정하지만 환경 때문에 혼탁해지니 본래 불성을 계발해 성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불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면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없어요.

연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던 제자들이 몇 년씩 돌아왔는데 배가 나오고 영양이가 커져서 수행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달간 매일같이 간식을 못 먹게 하고 걸레 빨아서 청소를 시키고 시간생활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몸이 갖춰졌어요. 정신도 중요하지만 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기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새해가 시작된 지 엊마 되지 않아 이것저것 새롭게 결심을 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욜해만큼은 휠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보세요. 세상에 남 탓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에 달려있습니다. 부처님 법의 본질은 자비예요. 주위 사람들이 편해야만 내가 편한 법이지요.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도우세요. 남과 신뢰는 쌓는데 자비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다보면 지혜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천운스님은 40년 넘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천운스님은 엄한 아버지이자 자상한 할아버지다.

"불성 계발해 성불 하길"

선은 부처님 마음 배우는것
교는 부처님 말씀 배우는것
율은 부처님 행을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교육이 세상을 바꾸죠"

지상 백고좌

천 운 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기자가 본 천운스님

14살 소년은 한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완고한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의 고집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일념에 결국 집을 뛰쳐나왔고, 길에서 만난 비구니 스님을 따라 내장사로 가게 됐다. 거기에서 한영스님을 만났고 그 밑에서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지금 호남지역 포교의 '대부'가 됐다.

광주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에 전남경찰불교회장, 광주교도소교화위원회장, 전남도청불자회장, 우산복지관 관장 등 지역사회에서 맡은 직함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직함(?)은 '할아버지'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지 40여년이나 됐다. 현재 향림사에 살고 있는 50여명의 아이들에게 천운스님은 엄한 선생님이다.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회초리를 든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천운스님을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따른다. 아이들의 고민을 곧잘 들어주고,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준다.

천운스님은 광주에서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불교대학, 어린이집, 신협 등 1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이나 목포, 강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 합하면 모두 20여개. 74세의 나이로 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 많은 일을 직접 챙기시다보니 자연히 과로할 수밖에 없죠. 그뿐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적당히 하시라고 해도 '나를 보러 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느냐'며 오히려 직원들을 호통 치시곤 합니다. 그래서 큰스님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8년째 천운스님을 모시고 있는 향림사 총무부장 김호정씨는 이제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건강하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천운스님은 언제 잠자리에 들든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과 독경, 참선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늘 앞서는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서도 포교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이다. 불교 불모지인 호남지역에 이만큼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71년부터 30년 넘는 세월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은 천운스님의 노력 덕분이다.

고아 돌보기 40년…복지시설 20여곳 운영

천운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1947년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지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과 해남 대흥사 조실로 계시면서 향림사에 주석하고 있다.

남전스님의

스님 이야기

지문스님 (上)



흔히 절 집에서 불사(佛事)한다 고 하면 탑을 세우고 법당 짓는 일이 전부인 줄 안다. 그러나 불사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크고 넓다. 사전에는 부처님의 능사(能事)인 교화(敎化)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 가지 일에 의탁(依託)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사는 절 짓는 일 이외에도 점안(點眼), 낙성(落成), 수계(受戒)등의 갖가지 법회와 사경(寫經), 제사등의 의식 진행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불사가 잘 되었다는 말은 부처님의 법(如法)답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불사가 되는 것인데 자꾸 세우고 짓는 일만 중요시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부작용과 정신문화의 상실로 폐해가 심각하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규모나 시설에서 현대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제대로 된 불교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현대화가 아닌 현대사회를 불교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불사가 아닐까? 비록 탑과 법당이 낡고 비좁다 하더라도 언제나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에서 진정한 불교의 모습은 보여진다.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스님이 있다. 스님을 아는 불자들과 우리 도반들이 스님 이름 앞에 '불사제일(佛事第一)이란 칭호도 붙여 놓았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 두타제일 가섭…)처럼 말이다.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현재 하동 쌍계사에서 교무스님의 소임을 보고 있다. 지문 스님이 바로 그 분인데,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주로 군승시절의 활약(?) 때문이다. 스님은 1992년 경에 강원도 인제 원통 지역의 12사단에 군승으로 재직했다. 이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오지이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포교 활동이 쉽지 않은 곳이다. 스님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직 기간 동안 병사들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에 법당을 신축하고 사단 본부의 법당을 과감히 정리해서 부대 바깥에 2층 법당을 마련했는데, 불사제일이란 그런 외형적 활약에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고 이루어내는 내용이 훌륭해서다. 스님은 새로운 법당에 우선 유치원을 개설했다. 그 당시의 유치원 개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었고 더구나 군(郡)법당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사람도 많지 않은 지역인데다 몇 안되는 군 불자들로 어떻게 유치원을 유지할까 하는 주변의 걱정에도 스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결국 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유치원을 만들어 냈다. 지역 불교 포교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스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불사들을 정말 여법(如法)하게 이루어냈다. 짧은 지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할 수는 없지만, 군인과 민간인이라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아무 거리감 없이 법회에 동참시키는 모습이라든가 계급이 전부인 부대에서의 행사에도 언제나 스님들의 위의(威儀)를 잃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한 점등은 나 비롯한 다른 군승들에게도 좋은 경험으로 실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스님은 불사를 진행하면서 군인 불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한 경제적인 문



그림 · 문병성

군승때 악조건 속 수많은 불사
복지 · 외국어 관심 '끝없는 공부'

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성지순례 신행모임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의 봉정암이나 낙산사 같은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가는 불자들을 근 범당으로 인도하여 많은 도움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동참한 불자들에겐 성지순례의 환희심에다 열악한 군 불교의 현실을 이해하고 군 불자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탰다는 보람까지 주었으며, 군 불자들에게 많은 민간인 신도들의 방문과 보시로 자부심을 갖게 했고, 부대 내에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야말로 다목적의 효과를 본 것이다. 다들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던 불사들을 이렇게 이루어낸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스님은 군시절 뿐 아니라 제대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한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공부했고 영어 일어등 외국어 공부를 계속하며 또 다른 불사를 준비하고 있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엄마 전엔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 스님들과 대만의 불광산사(佛光山寺)를 견학하고 오셨단다. 스님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 해야겠다고 한다. 지문 스님의 다음 불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계속)

■ 서울 정혜사 주지



◇부처님이 대중들앞에서 설법하자 용이 감화를 받고 부처님이 왼쪽손에 들고 있는 그릇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등용조복'. 법성포 부용루 외벽에 조각돼 있다.

영광 법성포 부용루 외벽
부처님 일대기 조각

석공예 명장 이재순씨

석공예 명장 이재순씨(49)가 전남 영광 법성포 부용루 외벽에 부처님일대기를 조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간다라미술 양식을 띠고 있는 이 부조물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성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창 불사중인 부용루 외벽에 가로 2m, 세로 3m 정도 규모로 조각돼 있다.

이 부조물에는 연등불이 진흙길을 걷자 석가가 머리를 땅에 대며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모습을 그린 '연등불 본생기'를 비롯해 석가가 태어난 후 7보를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탄생칠보행', '태자의 결혼', '출가', '고행상', '아바라라 용왕의 귀의' 등 부처님 일대기와 불보살들이 23개면에 새겨져 있다.

김주일기자

'부처님 찾아서' 특별대상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영남불교대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개최한 '제2회 전국 불교만화공모전'에서 김용운씨(동아만화예술학교)가 단편만화 '부처님을 찾아서'로 특별대상(총무원장상)을, 방정현씨(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가 만화컷 '콩콩이의 즐거운 불교수행'으로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애니메이션, 단편만화, 컷, 일러스트 등 총 1천여편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26일 오전 11시 대구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053)473-0344

◇특별대상을 받은 김용운씨의 만화 '부처님을 찾아서'.

도둑질을 일삼는 중생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다는 내용의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원철스님 작·송미숙 연출)이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극단 '예삶'의 제 4회 정기공연이기도 한 이 작품은 스님이 직접 대본을 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극 '붓다를…' 2월6일부터 공연

도둑이 수행자로 거듭나는 과정 그려



◇도둑질을 잘하는 말구가 절에 들어와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그 주인공은 천안불교문화원장 원철 스님. 매월당 문학상과 허균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극대사 곳곳에서 불교와 문학적인 향기가 쏠쏠히 배어 나온다. 하지만 '붓다를…'이 일반 연극과 다른 점은 역시 스님의 오랜 산사경험이 연기 장면마다에 녹아 흐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안거 하는 모습, 대중공사 장면, 주인공인 원각 스님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산문 출송하는 장면 등은 스님이 직접 연기 지도를 해 리얼리티를 더해준다.

'붓다를 훔친 도둑'은 도둑질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말구가 절에 들어와 온갖 못된 행동을 하지만 조실 스님과 선방에 수행중인 원각 스님의 도움으로 참 수행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말하면 제목 '붓다를 훔친 도둑'에서 붓다는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극이 불교의 교리만 전달하려는 무겁거나 지루한 작품은 아니다. '수월관음도'를 함께 훔치자는 노스님 운학의 능청스런 꼬임에 빠져 멋모르고 절에 들어온 말구가 여러 스님들과 좌충우돌하며 벌이는 행각은 연극의 재미를 배가 시킨다. 말구가 술을 마시고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염불하듯이 부르는 것이나, 원각 스님에게 자신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 덤벼들다가 보기 좋게 당하는 장면 등 배꼽을 쥐게 만드는 장면도 관객 서비스를 위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여기에 법현 스님(동국대 교수)이 법고나 염불하는 것을, 박귀현 교수(계원 조형예술대)가 불교적 정서가 묻어나는 선적인 안무를 지도해 주제 전달에 도움을 준다.

그래도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력인데 지난해 연극무대 인생 40년의 관록을 돌파한 이호재씨를 비롯해 이상직, 김종구, 전형재 등 중량급 배우들이 출연해 무게를 더한다.

연출가 송미숙씨는 "막연히 알고 지내는 스님들의 산사생활을 무대로 끌어내어 물질적 욕망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자기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하고 싶었다"며 "이 연극을 보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극단 '예삶'은 이번 공연기간중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장애우들을 관객으로 초청해 무료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 (02)357-535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선암스님의 렌즈속에 포착된 영산재 中 '천수바라' 의식.

렌즈에 담은 영산재
선암스님 두번째 사진집 펴내

10년동안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영산재의 모습이 한 권의 책에 담겨져 나왔다.

선암 스님(태고종 신촌 봉원사)이 89년에 이어 두 번째 '영산재(靈山齋)' 사진집을 펴냈다. 이 책의 첫 장은 불교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과 시련'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영가를 법회 도량으로 맞이한다는 '대령', 영가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는 '관욕', '공덕게, 법성게 및 회향' 등 영산재 의식의 전 과정이 순서대로 실려있다. 법현 스님, 동희 스님, 능화 스님 등 범패의 고수들도 대거 등장한다. 특히 각 의식장면 앞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놓아 이 책만 보면 외국인들도 영산재 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책에는 '식당작법 의식' 부분이 거의 빠져 있다. 2년 후에 이것만을 주제로 책 한 권을 따로 묶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선암 스님은 "밥짓는 과정부터 공양게 외우는 의식, 회향까지 전 과정을 조명해 얼마만큼 공양이라는 것이 성스럽고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할 것입니다."고 말한다.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00 아침 예불
05:45 고승열전
06:00 뉴스
06:30 아침저널 1부
09:05 차 한잔의 선율
10:05 BBS신행상담실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2:20 백팔가요
14:10 네트워크연결, 전국은 오늘
15:05 음악의 마을
16:45 룸비니동산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18:15 유쾌한 저녁길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2:05 영화음악실
23:05 불교문화산책
24:00 한밤의 명상음악
01:00 젊은 그대에게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22일 09:30 btn 생활문화강좌
12:10 생각하는 만화
12:20 군법당 순례법회
23일 09:30 차문화산책
10:20 재미있는 경전공부
12:20 김병조 토크쇼
24일 07:40 혜거 스님의 신심명 강의
09:30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12:20 신년특집 대담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
25일 09:30 다큐멘터리 '티벳불교'
10:20 성운 스님 불경강좌
13:20 btn 열린마당
26일 12:00 영상니르바나
16:10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27일 07:40 지운 스님의 원각경 강의
09:30 생활건강백과 '오행생식'
12:20 TV 법회
28일 09:30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12:20 btn 특강

하일라이트

■**불교방송**:△행복스튜디오(24일)-조성태 한의사가 출연해 건강상담을 받는다. △무명을 밝히고(27일)-종단, 신행, 학술 등 한주간 일어난 불교계 소식을 전해준다.

■**불교TV**:△김병조 토크쇼: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불자가수 이은하씨가 출연해 초등학교 6년때인 데뷔시절부터 20장의 앨범을 내기까지 연예계 생활의 애환을 들려준다. 특히 77년에 발표해 인기를 얻었던 '밤차'란 곡의 안무에 얽힌 에피소드도 밝힌다.



설 알차고 건강하게

계미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명절인 설(2월 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 대한 새해인사인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며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설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요령, 유의해야할 건강상식을 알아본다.

■선물, 제수용품 구입

불교 알뜰시장·전문쇼핑몰 이용

설날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이나 생협매장, 전문쇼핑몰을 이용하면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다. 서울 관문사는 25~28일 설날 제수용품 알뜰장터를 연다(02)3460-5300.

봉은사, 능인선원, 부천 석왕사, 남원 실상사 등의 생협매장에서는 쌀, 채소, 건강식품, 건어물 등 다양한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031)403-1810.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는 목제기와 성묘용 이동식 제기, 전통유과 등의 제수용품을 비롯해 건강지압봉이나 찜질팩, 다기세트 등의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실시하는 예약 판매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할인점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22개점에서 '홈플러스 선물 상담데스크'를 마련해 설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무료 배송을 해 준다.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몰(www.cybermall.co.kr)은 6일부터 백화점에서 개발한 식품 선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5%를 적립해 주는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인터넷 쇼핑사이트들도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다음달 2일까지 설날 복(福) 상품대전'을 열어 850여종의 설 선물용 상품을 판매한다. 인터넷쇼핑몰 한솔CS클럽(www.csclub.com)과 롯데닷컴(www.lotte.com), SK디투디(www.skdtod.co.kr) 등의 온라인쇼핑몰들도 설날 상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www.epost.com)은 23일까지 3720여종의 전국 특산물을 10~20% 할인판매하는 '설맞이 할인 대잔치'를 연다.

■명절 건강하게

과음·과식 NO, 응급처치 알면 도움

고향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한밤중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생체리듬이 흐트러져 연휴 내내 피로감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새벽출발이나 야간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멀미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민 생강을 준비해 멀미가 날때마다 한 조각씩 입에 물거나 마른 오징어, 문어다리, 쥐포 등을 잘게 잘라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좋다.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 비타민, 아연 등 소모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준다.

명절에는 방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자연스레 과음 과식하게 되고 위의 운동부족까지 겹쳐 배탈이 나기 십상이다.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약간 부족하게 먹는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것, 질긴 것이나 딱딱한 것은 설사를 일으키므로 피한다. 속이 불편하다고 눕기보다는 똑바로 앉아 있거나 걷도록 한다. 또 떡, 식혜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과식하면 뇌가 피로해져 토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급체를 했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위를 비워두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심하다면 소금물을 마시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는 것도 좋다. 토한 뒤에는 체온이 떨어지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한다. 특히 급체환자는 질식을 막기 위해 비스듬히 눕히고 벨트나 넥타이를 풀어준다.

여수령 기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금자석 연옥합장주
혈액순환 원활
스트레스 해소

'금자석 연옥합장주'는 엄선한 연옥과 부처님 또는 卍자가 조각된 14K 금자석으로 만들어졌다. 금자석과 연옥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 적합하다. 대한보석감정연구원의 감별서가 첨부되어 있다. 값 15만원, 9만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떡국



떡 500g, 표고버섯 5개, 다시마(20cm) 1장, 무 1코막, 말린 참죽 줄기 약간, 김 1장, 들기름, 집간장 약간씩

1. 표고버섯은 1시간 정도 불려 적당한 크기로 찢는다. 김은 구워서 가위로 가늘게 썬다. 다시마는 물에 한 번 씻고 무는 적당한 크기로 납작하게 썬다.

2. 냄비에 들기름과 표고버섯, 다시마, 무를 넣어 볶는다. 잘 볶아지면 물을 조금만 부어 더 볶다가 국물이 우러나면 말린 참죽 줄기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다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3. 적당히 끓으면 건지는 건져내고 떡을 넣는다. 채썬 김을 올려낸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윤회와 인연

50 고개를 막 넘긴 듯한 중후한 신사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은 저를 보자,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쓴 소설을 읽고 운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불교사상이 있어서 절에 계신 스님과 상담을 할까하다가 생소한 스님 보다는 제가 친근하게 느껴져서 저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 분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낸 K라는 친구가 있다 했습니다. 공부방이 따로 없었던 그 친구는 1년이면 7, 8 개월을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형님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형님이 쓰던 방을 친구가 공부방으로 쓰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아들 하나를 더 둔 정도로 생각하고 아침이면 친구 도시락까지 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같이 지낸 두 사람은 다 같이 희망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한 후에 친구는 은행에, 자신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친구가 자신보다 2년 먼저 했는데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형제같이 지냈기 때문에 설날이면 가족을 데리고 양가 부모님께 서로 세배를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분은 40세가 넘자 자신의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염료를 생산하는 일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그 계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에 손을 대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첨단시설을 마련해야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주위 사람들한테서도 돈을 빌려서 가까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게 섬유파동이 불어서 개업과 동시에 휴업을 해야 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몇 년을 지내자 섬유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 그 분도 재기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부탁 자체가 자기로서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 상황으로서는 그 친구한테 밖에 부탁할 수 없었고, 거꾸로 생각해서 그 친구도 자기와 같은 상황을 맞았다면 당연히 자기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 친구는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 게 우정 아닌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뭔가 말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한 말을 몇 번 입속으로 되뇌어 봤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분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온 그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누워서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나자 사업도 차차로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각 국에 염료를 수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한 번 깨진 친구와의 우정만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그 분은 10년이 넘도록 친구를 만나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친구가 몇 번 전화를 하고 가족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제안을 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친구와의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어 아내는 늘, 금생에서 인연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내생에서 나쁜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되니 하루빨리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갖자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아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듣다보니, 금생에서 인연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내생에서 나쁜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되나? 하는 의심이 들면서 '윤회와 인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저를 찾아 온 목적도 윤회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윤회와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라면 다음 생까지 끌고 갈게 아니라 금생에서 깨끗하게 풀어버려야겠군요. 가능한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化緣 (02)704-3577

깨어진 우정, 금생에 잘 풀어야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부처님 믿는 마음은 곧 희망입니다

조미자 (충남 천안시 쌍용2동)

철석 같이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왜 나에게 이런일이" 원망 깊어가

46세라는 중년의 나이에 잘 쓸줄도 모르는 글을 쓰게 되어 지나간 일들을 곰곰히 되돌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씁쓸한 아픔이 보이는 듯 합니다. 말로는 잊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에 그런가 봅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고통스러운 일이 내 일로 닥쳐오자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나는 목놓아 울었습니다. 5년전 가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세상에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나를 잘 아는 남편이 평생 나만을 보호해 주며 의지처가 되어 줄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깨뜨리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은 몇 갑절 더 했습니다.

친정에서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서러웠습니다. 오히려 늘 딸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어머니가 아시면 그대로 돌아가실 것만 같아 조바심하며 가슴만 치고 있었습니다.

대신 시댁식구들이 나서서 아이들 장래를 위해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고, 조강지처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거라며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늦게 안것을 후회하고 남편에게 내게 잘못이 있으면 다 용서해 달라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보다 더 잘해주며 갖은 애를 다 써 보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혼자 감당하기 너무도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한달여 동안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물만 겨우 넘기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며 지내다보니 몸은 대꼬챙이처럼 말라갔고 아이들 또한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말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때 큰 애는 고1 이었고 작은 아들은 중2로 사춘기였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생각하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나까지 이러면 안된다고, 애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내가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의 힘든 고비에서 피어오른 한 생각으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절에는 초하루, 보름때만 겨우 가는 불자여서 신심이 돈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부처님 믿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지 왠지 부처님께 매달리면 힘든 마음이 덜어질것 같았습니다. 절 인연도 따로 있나 봅니다. 다니던 큰 절을 뒤로 하고 동서가 다니는 절을 찾았습니다. 그때 동서는 쌍용사에서 공양주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작은 절은 한 눈에 보기에도 아늑해보여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받아줄 듯 보였습니다. 동서의 소개로 주지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힘든 얘기는 동서가 이미 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말고 남편이 돌아왔을때 아무일 없었던 듯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남편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더욱 잘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절을 하기만 하면 눈물이 솟구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법당에서 큰소리로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양쪽을 다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사람같지도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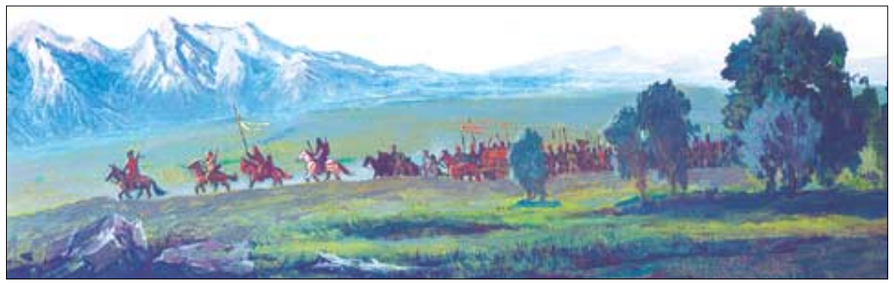
깊어가는 원망에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어느날 스님께 하고 많은 사람중에 왜 제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하며 남편은 내게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저의 업보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생에서인가 나로부터 원인이 있어 이생에서 과보를 받는 이치, 지은대로 받는 인과응보이고 내 업장이 두터워 이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야 후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 탓을 하지 말고 오로지 내탓이오 하면서 마음을 닦고 또 닦으며 오로지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마음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그림 · 김흥인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화 샤카족의 탄생 ③



마침내 네명의 젊은 왕자들은 성문을 열고 긴 여정에 올랐으며 태자 에게 불안을 느끼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집을 버리고 왕자들의 행렬에 참가하니 성안의 반이 쓸쓸하게 비어 남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많은 백성들은 산기슭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서 눈앞에 속속 나타나는 드넓은 대지와 풍요로운 산천의 아름다움에 매료 되었다.

네명의 왕자들이 이끄는 이 샤카족 일행은 그들보다 먼저 와서 정착한 것 같은 샤카족의 일족인 코리아(Koliyas)족의 영역을 지나게 되었다. 먼 타지에서 동족들을 만난 그들은 크게 기뻤으나 그렇다고 남이 애써 개간해 놓은 땅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코리야의 땅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그들의 눈앞에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동산이 나타났다. 먼 훗날 부처님이 태어나실 성지 '룸비니 동산'이 그곳이다.

꽃동산을 지나 얼마쯤 더 가자 마침내 새 나라를 일으키기에 적당한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 맑고 깨끗한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르고, 대지는 기름져 있으며 고향을 회상케 하는 희마리의 설산이 그 웅장한 모습으로 손짓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상적인 땅이었다.

"자, 이곳에 우리들의 새 나라를 세우자." 왕자들의 결정에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 하였다.





왕자들은 소왕국 카필라바스투의 입국을 주위의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네명의 왕자중 제일 큰 형이 제 1대 라자(王)에 올랐다.

카필라바스투는 즉시 현지에 살고 있던 검은 피부의 원주민들을 굴복시켜 노예로 삼고, 그 위에 군림하며 마하삼마다 대왕의 혈통을 받았음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이곳을 새나라 건립의 적지로 생각한 왕자들은 우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을 세워, 모든 백성들을 성안으로 옮겨 살게한 다음, 성주위의 가까운 땅부터 개간하여 나라의 질서를 잡아갔다. 드디어 역사적인 샤카족(Sakyas)의 카필라위(KapilaVasttce-카필라바스투)성이 탄생한 것이다.

성의 동쪽으로는 로히늬(Rohni)강과 티나우(Tinau)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반강가(Banganga)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바로 이웃에 '코리야(Koliya)' 혹은 '데바다하(Devadaha)'라 불리는 동족(샤캬족)의 나라가 있어 한결 마음이 든든했지만, 남쪽으로 쿠시나가라(Kushinagar), 바이실리(Vaishali), 파바(Pava), 코살라(Koshala) 등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불안하였다.

당시의 여러 군소 제국들중 코살라국(Koshala)과 마가다(Magadha)국이 유난히 강력했는데 마가다국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코살라국은 바로 턱밑에 버티고 있어서 카필라바스투의 번영은 코살라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비로소 가능해 보였다.



제1대 라자(王)가 즉자 제 2, 제 3왕자가 차례를 이었으나, 그들 역시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결국 막내왕자에게도 라자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왔다. 이 마지막 왕자가 바로 사자협인데 그로부터 부처님의 아버지가 되는 숫도다나(Subbhadana)라자가 태어나게 된다.

사자협(師子頰)의 원이름은 심하하누(Simhahanu)이다. 숫도다나 라자(王)는 한문으로 '정반왕(淨飯王)' 이라 하는데 그 뜻은 '좋은 쌀을 가진 왕' 이라는 뜻이다.

사자협(師子頰) 라자에겐 네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이 있었는데 장남인 숫도다나(淨飯)가 다음 왕위를 계승했고, 둘째 왕자 슈크로다나(白飯), 셋째가 도토다나(斛飯), 넷째가 아므리토다나(甘露飯)였다.

카필라바스투(Kapilavasttce)는 숫도다나 라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되나 이때는 이미 남쪽의 강력한 코살라국의 번국(제후의 나라)으로 전락되고 있었다. 코살라로 부터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이긴 했으나 자존심이 강한 샤카족으로선 대단히 치욕적인 사건으로 아리얀족에 대한 적개심이 한층 불타오르게 되었다.

정반왕 숫도다나 라자(王)가 카필라바스투를 이끌고 있을 당시 이웃의 동맹국이면서 같은 동족(Sakya)의 나라인 코리야(Koliyas)국에 수프라 붓다(Suprabuddha-善覺)가 라자의 자리에 있었다. 수프라 붓다 라자는 그의 아름다운 왕비를 위하여 카필라바스투와 데바다하(Devadaha) 사이에 있는 동산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왕비의 이름을 따 룸비니(Lumbini)동산이라 이름하였다.

'룸비니'는 물론 수프라 붓다 라자의 왕비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지모신(地母神)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우리 민족이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보는 사상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어려운 것 닥치면 닥칠수록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아야

〈404호에 이어〉

▲질문자1: 제가 신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이 드니까 신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하는 점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하나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해결 못하면 견건이 끄달리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벌려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요, 못나게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모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고,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은 탓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받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고 '내가 다 지어놨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놓고 간다면 다시금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운명이나 팔자나 영계성 · 세균성 또는 업보성 · 인과성이 다 몰락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지금 하나하나 없애고 가는 길입니다, 모두.

▲질문자1: 예. 제가 스님의 말씀을, 지금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오히려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공부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예. 사실인 겁요, 뭐.

▲질문자1: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감이 태어나기는 해도 이 땅이 권력상쟁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보아도 그렇고,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더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스님: 그런데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민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의 너그러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바깥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서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하고, 만약에 나섰다 하더라도,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치워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상 이 마을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러 나가서 떡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했다는 소리 말입니다.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뜻이 안 들어갑니까? 고개짓을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생명은 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세계로 비추어볼 때 전력은 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전력은 다 통하게 돼있어요. 어떤 거든지 끌어써도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볼 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볼 바퀴와 상대의 볼 바퀴가 한데 합치면 둘이 아닌 불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어. 모두 물질계로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밟으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마음들을 한데 합쳐서 기울여보시면 중국의 왕이 말한 뜻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평등 공(平等空)의 법이라는 것은 췌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식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질문자1: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류(類)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애는 애 노릇을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어른 노릇을 해야 할 때 애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애 노릇을 해야할 때 어른 노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하면 만약에 부모러니까요,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거짓 아닌 방편의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질문자1: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 못 했다고 안다고 그러겠느냐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속의 생명체들이 '흥, 네가 했다고 하고 네가 안다고 한다면 실컷 알아봐라, 실컷 해봐라.' 이러구선 작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고 자꾸 빗나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게 부처님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래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속에, 방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있으니 내가 혼자 있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여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문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스님께서 가르치는 생활의 여러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몇년 간의 마음공부가 수행하는 데에 오히려 방만과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계율에 걸리지 말라.'고 하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제하자고 말하고 싶어도 왜 걸리느냐는 상부적인 반응이 싫어서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난감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소로 삼았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게 한끝나 알았으면 훌쩍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얽른 쉽게 말해서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짐승들도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점 하나 우연히 참, 선승(禪僧)들이 한 점 잡수기를 원하고 원하면서 그렇게 열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짐승들도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서 풀이슬만 먹고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소가 왜 살생을 하지 않고 어떻만 먹고 삼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 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 하면 독사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질문자1: 스님께서는 먹히는 그 고기나 먹는 사람도 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스님: 아이,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깐 자유죠.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이겁니다. 지혜롭고 아주 틀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악업 모두 없애려면

인내와 물러서지 않는 마음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있고 지혜로워야

"긍정도 부정도 모두 나온 그 자리에다 놓으세요."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는데 제자가 생각을 하니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수없이 잡아서 그냥 푹 고아가지구선 그거를 체에다 받쳐 가지고 "지옥엘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리니까 "이게 무슨 탈인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뿌리를 고은 들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병이 다 나아서 아주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플뿌리라고 했던 그 제자는 지옥에 갔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 아닌 거짓으로 효(孝)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자기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공바로 인간으로 환생이 전부 된 거죠.

왜냐하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는데 닭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뜻을? 닭 수효대로 닭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화(化)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 한데 합쳐서 한 마리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 해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응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살생이지만 그건 살생이 아닌 것이죠.

▲질문자1: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모든 것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기에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경허스님은 무애행(無碍行)을 많이 하셨다지요. 또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성철스님은 그 입장을 조금 배척하신 겁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허스님의 무애행 그 자체는 긍정을 하시지마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데는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무애행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스님: 그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그거를 자기가 알더라도 중생들에게 비춰서 나쁜 영향으로 누(累)가 되지 않게 하지 그랬느냐 하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질문자1: 네.

▲스님: 또 한 가지, 경허스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서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뛰어넘어라 하셔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보이시고) 든 겁니다.

▲질문자1: 예.

▲스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높으냐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애요. 다 똑같으니까 피장파장이에요.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자꾸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累)가 되게 비치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요.

▲질문자1: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이 마음의 길을 걷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모두 몸뚜서 내가 이런 대답을 해도 '뭐 그게 마땅한가?' 이러겠지만 사실이 그러니까요. 뼈다귀를 들고 술을 바리때에다 담아서 들고, 뼈다귀 든 거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지고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됐고, 하나는 수레바퀴처럼 모든 중생들이 다 이렇게 참나를 나 물처럼 돌아가느니라 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물이 수 없는 중생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지마는 크게 뜻을 본다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바리때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공부요, 공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도 이세상을 살면서 쓰다 달다 생각 없이 참 그대로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나쳐렵 말입니다. 하하하….

▲질문자2: 스님,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전번에 질문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러고 '그저 놔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거기에서 약간 맴돌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스님: 긍정적인 일은 해야죠?

▲질문자2: 네.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질문자2: 네.

▲스님: 그렇게 법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법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2: 네.

▲스님: 그게 묘법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깐 법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이다 하는 데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뒤에는 악행이 뒤따른다는, 상반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제 마음에서는 항상 제가 판단했을 때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옳은 길이면 가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마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선행이 있으면 악행도 있는데 선행과 악행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2: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말이 나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을 하고 나는 데요.

▲스님: 이거 봐요. 밥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해올 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하러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왜냐? 전력이 똑같듯이, 비유해서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나쁜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천리 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 모든 걸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합 해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化)해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돼주고,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주고, 또는 엄마 못 살고 죽겠어서 좀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침성이 돼주고, 이렇게 나툰다는 말입니다. 만 겁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질문자2: 네.

▲스님: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져서 보고, 밭자국을 떼어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잘못되는 그 자체가 잘 되게끔 연결이 돼서 차차 자꾸 잘 되거든요. 아비하게 하는 사람도 아비하지 않게 마음이 되죠.

그래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건지라는 겁니다.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또 인과가 돼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냥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놔라 이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구서 자기 주인공에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러고 그 뒤에 말 한마디 또 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처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처례차례 녹음한 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그러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 지은 대로 녹음이 돼서 처례차례로 쌓여져 있다고 합까요? 쌓여진 것이 처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다른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 있으면, 잘 놓아서 모두 다 녹아야, 그렇게 나온 제자리에다 되놔야 앞서의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즐어들게 됩니다.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속으로 '어, 인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말고, 나쁜 고(苦)가 쌓이고 쌓인 악업들이 모두 처례차례로 없어지려면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그거를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질문자2: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삼정례(三頂禮)를 일정례(一頂禮)로 포함해서 하나로 합해서 하면 좋아요. 아주 자유스러운 법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거든요. 허허허.

▲질문자3: 세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어느 자식 치고 부모님의 병환에 대해서 근심 없는 자식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님께서 모 대학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옳게 살아왔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옳게 살기를 항상 말씀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 저희 모두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한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다른 거는 말고라도 내 깊은 마음 속에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네 몸뚱이 병을 고칠 수 있어.' 하고 그거 한 마디만 관(觀)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꼭 접근이 될 겁니다.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네 몸뚱이 병 고칠 수 있어."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80(불)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와 컴 배우러 오세요”

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 수련회 준비로 분주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나가면 은지(10)는 늘 혼자다. 그러나 은지는 외롭지 않다. 집에 없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고 배고프면 언니, 오빠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먹을수도 있는 또 다른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은지가 사는 동네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이곳 우암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은지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이곳 상담실을 매일 찾는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7대나 있고 대형 텔레비전으로 케이블 TV 및 비디오 시청, 독서, 음악감상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또 아빠같은 스님이 항상 말벗이 되어준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이곳 상담실은 은지 또래의 아이들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내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한달 이용자만도 7~800여명. 정보소외지역인 이곳 달동네에 유일한 정보접근지역이자 열린공간이다.

요즘 은지는 아예 상담실에서 살고 싶다. 1월 25~27일 열리는 디지털 동계 수련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이 상담실에 오기 때문에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 기다리던 동계수련대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 오빠들의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진다.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간사진들이 정은스님과 함께 지역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등



◇달동네 아이들이 방학기간 가장 열심히 드나드는 디지털 열린상담실의 동계수련회는 컴퓨터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는 기회다.

노래·PC방 24시간 무료이용, 인기 ‘짱’
청소년 100여명 초청, 프로그램 다양

10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수련회를 갖는다. 상담실 인근 불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피시방 등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종의 퓨전 수련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매년 수련회를 열때마다 목돈이 들어가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지만 상담실 지도법사 정은 스님은 수련회 준비 및 진행을 모두 간사진에게 일임했다. 간사진들은 매일 상담실에 모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수련회를 준비하기에 분주하다.

정은 스님은 “어린시절 가난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매년 실시되는 디지털 동계 수련회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라마 조파 린포체



체험담, 포토와 이미지 등 서비스

라마 조파 린포체의 홈(www.lamazopa.com)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라마 조파 린포체는 라와도 라마의 환생으로 여겨지고 있는 스님으로 1946년에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맥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미 4살 때 라와도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받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린포체와 만남’ 코너에서는 행복으로의 여행, 귀중한 구루, 지나간 삶, 라와도 라마, 젊은 린포체의 순례, 수도원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준비, 카르마, 공, 다르마, 매일 매일의 명상, 신성한 목적, 보시, 엎드림, 탑, 감격스런 단어 등의 ‘나의 완벽한 스승’ 코너도 있다. 여기서는 법륜을 굴리는 의미와 공덕에 대한 설명도 있고 체험담도 담겨 있다. ‘포토와 이미지’ 코너에서는 린포체의 가족, 사진첩, 부처님, 상가 등의 이미지들을 서비스한다.

라마 조파 린포체의 홈에서는 윤회, 라마, 쿤둔 등 각종 티벳불교관련 서적, 영화 테이프 등도 살 수 있다.

강지연 기자

IT단신

차기정부 IT비전 캐치플레이즈 공모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차기정부의 IT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주제는 IT를 중심으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전반을 효과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메시지로 응모 희망자는 15자 내외로 작성하여 전자우편(dppark@mic.go.kr)으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1편씩 100만원과 50만원 등 총 상금 210만원이 지급된다.

무인 우체국 연내 등장 우편·금융서비스 계획

우정사업본부는 올 하반기중 대학 두곳을 선정,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우체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무인우체국은 무인우편창구시스템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설치해 우편접수와 수신, 입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직원 2~3명이 상주하던 소규모 우체국을 무인우체국이 대처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판 엿보기

○…허공은 일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소유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다 진정한 무소유는 물질의 무소유가 아니라 마음이 허공처럼 물들지 아니하고 일체를 수용하되 분별하지도 집착 아니함이 진정한 무소유다. 청광, 운문사 홈페이지 게시판

○…공부는 스스로로해야하겠기에, 깨달음도 스스로 열어가는것이니까요.

정명보살, 의암재 홈페이지 게시판

○…하고 뱉을 말이라도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사는 세상 험한말하고살면 더 오래 산답니까. 좋은 말 하고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삽시다. 넘 험만 보이고 제 험은 안 보이는 눈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렵니까?

osim02, 한보살의 불교여행 토론방

○…우리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갓난아이의 맑은 눈빛처럼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밝혔으면 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처럼 세상을 그처럼 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합니다...

이민형, 서종사 홈페이지 다녀간 글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창립 10여년만에 신도수 7만여명 규모로 급성장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홈페이지 운영 등 IT불사에서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결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찰과 스님중심이 아닌 신도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미 인터넷 상 또하나의 사이버 사찰로 자리매김 한 영남불교대학관음사의 홈페이지는 99년 10월 첫선을 보인 이래 사이버대학 및 인터넷 방송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많은 불자 및 네티즌들의 관심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의 홈페이지는 우선, 만들어만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사 회주 우학스님의 신행문답까지도 동영상 멀티미디어로 바로바로 서비스되고 있다.

2000년 9월 개원한 사이버불교대학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또하나의 자랑거리. 불법을 배우고는 싶지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서울과 부산 등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기존의 통신과정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양방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매년 400여명이 수강하고 있는 영남불교대관음사 사이버불교대학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모든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동일하게 서비스 하고 있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만족해 하고있다.

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특히, 녹화한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해 비정규적으로 업데이

자체 사이버팀 관리, 수시로 업데이트
신행문답, 동영상 멀티미디어로 제공



◇관음사의 신도들은 홈페이지 운영에 직접 참가한다. 사진은 운영 소임자들의 회의 장면.

지 않는 불교계 여타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제작에서부터 관리를 모두 자체 사이버팀에서 도맡아 진행해 오고 있어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 이로인해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 직접 절에 나오지 않고도 원하는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사찰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영남불교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법회 등의 대부분의 행사를 비롯하여 영남불교대학관음

트하는 수준이었던 지금까지의 불교인터넷 방송국을 2004년부터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방송기자재를 구비하는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의 주 사용자층을 청소년 층으로 보고 이들 젊은 네티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하며 재미있는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총 4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박원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길 없는 산의 문없는 절 '피안의 정토'

전나무 숲·건축 등 탁월한 생태안목
다양한 수종, 조류 어울린 '명승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0) 능가산 내소사





●능가산 내소사 '호랑가시나무' (위) '직박구리' (아래)

능가산 내소사 변산(邊山)을 두고 일찍이 격암(格庵)은 '기근과 병란이 없는 십승지지'라고 했다. <동국여지승람>은 '천부(天府)'라고까지 하였다. 옛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어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이라 자찬했고, '생거변산(生居邊山) 사거순창(死居淳昌)'이라는 속담까지 낳았다. 그러나, '능가산(楞伽山)'이라는 말만큼 변산의 이상성을 확연히 드러낸 말은 아직 없다. '그 누구도 능히 그곳에 이르기 어렵다'는 능가산 ! 하지만, 길 없는 능가산에 문도 없이 늘 열려 있는 내소사가 있으니 이 또한 신묘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내소사 일주문 앞에 느티나무가 늠름하다.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자리에 7백년을 넘게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이다. 요즘도 스님들과 마을사람들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전나무숲이 바다[樹海]를 이루고 있다. 분명 사람 손으로 심은 것일진대 함부로 손댈 수 없을만큼 천연덕스럽다. 무위자연을 보여준 옛 스님들의 손길이 새삼스럽고도 놀랍다. 나무는 생육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잘 크는 법이다. 전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습한 곳을 좋아하는 음수(陰樹)다. 습한 자리를 골라서 전나무숲을 앉힌 옛 스님들의 생태적 안목에 또한번 놀란다. 이 전나무숲의 식솔은 대략 5백여 그루, 모두가 150년 전후의 수령들이다. 같은 침엽수라도 전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성질이 수더분해서 자기 그늘아래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도 눈감아준다. 조릿대가 듬성듬성한 숲바닥에는 작살나무, 두릅나무, 붉나무, 비목, 까치박달, 나도밤나무, 팥배나무, 쪽동백, 찔레, 개벚나무, 때죽나무 등등이 고만고만한 키들을 재고 있다.

사천왕문의 담장은 막돌 위에 기와와 황토로 켜켜이 쌓은 토담이다. 낮아서 더욱 단아한 토담은 천길 전나무숲을 지나오는 동안 팽팽해진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풀어준다. 기와와 황토를 켜켜이 쌓아 색깔 또한 부드럽다. 이것이 생태조경이다. 천왕문 옆에 방지(方池)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조경에서 우리 연못은 네모꼴의 방지가 기본이었다. 건봉사, 개심사, 선암사, 청평사 등지에 남아있는 옛 연못의 모습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사찰 경내 연못들이 전통을 잃고 일본식으로 많이 변형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느티나무 당산목 가까이에 3백년 묵은 달피나무가 함께 늠름하다. 간혹 이 나무를 '보리수'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근래 나온 <내소사지(來蘇寺誌)>에도 '싯다르타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나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나무가 인도의 그 보리수(Ficus religious)는 아니다. 아는 사람이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알게 되므로 고치는 것이 낫다. 내소사의 옛 해우소는 근래 다시 지은 것이지만, 다락식 중층구조는 옛 모습에 충실하다. 변조칸 뒤편의 대숲이 너무 무성해서 변조칸의 채광과 환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조금 베어내서 햇볕과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덤으로 작업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변산, 최근 5년 용도변경 구실로 숲훼손 13만평

내소사의 누문은 봉래루이다. 몸집은 크지만, 기교와 장식을 거부해 선방의 노승처럼 소박한 건물이다. 어느 절이나 원래 누문 밑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도록 동선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친절하게도(?) 옆에 따로 돌계단을 두는 바람에 모두들 누문을 비켜 다니고 있다. 동선은 가람배치나 사찰조경에 있어서 핏줄과도 같아서 편의위주로 동선을 바꾸면 아름다움이 반감된다. 설선당은 보기 드문 생태건축물이다. 높은 지대의 설선당과 낮은 지대의 요사채가 만나서 절묘한 ㅁ자형 구조를 만들었다.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다 땅을 훼손하지 않고 절묘하게 앉힌 것이다. 낮은 요사채를 중층구조로 올려서 지붕까지 수평으로 맞추었다. 막돌을 주춧돌로 놓고 그 위에 구불구불한 자연목을 그랭이질로 절묘하게 앉힌 것도 서양건축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생태성이다.

대웅보전 내부는 그대로가 피안의 정토다. 용봉이 날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온갖 꽃비가 내린다. 전설에 따르면, 대웅보전 벽화와 단청들은 모두 황금빛 새가 그렸다고 한다. 이런 저런 내용을 미루어보면 그 황금새는 아무래도 꾀꼬리일 가능성이 크다. 황금색을 띈 꾀꼬리는 산속 활엽수에 둥지를 틀고사는 여름철새다. 여름이면 내소사 숲에서도 볼 수 있다. 청련암으로 가는 숲길은 산새들의 마을이다. 직박구리가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는 홍시 몇 알에 정신이 팔려 사람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질 않는다. 직박구리는 중부지역 이남에서 흔히 관찰되는 텃새이다. 목소리도 색깔도 그리 아름답지 못하면서도 친근함을 주는 것은 인적 끊어진 외진 산속이 아닌 마을숲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산을 도로 내려가서 월명암을 찾아간다. 아까 지나온 전나무숲에서 시작되는 등산로가 관음봉-직소폭포-월명암으로 이어져 있다. 관음봉에 이르면 골짜기 아래로 내소사가 편안히 내려다 보인다. 예전에는 관음봉을 '수리봉'이라고 했다. 수리는 매나 솔개[鷲]를 가리키는 같은 말이다. 솔개의 옛말은 '솔애'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소사의 옛 이름인 '소래사'가 '솔애절=솔개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소폭포를 지나 호수 숲길은 전형적인 솔숲길이다. 줄기도 미끈하고, 가지들도 늘씬하게 뻗어있다. 게다가 수피가 얇아서 쓸모가 많은 홍송이다. 고려조에는 이곳 소나무로 궁재(宮材)와 조선재(造船材)를 삼았다고 한다. 그 종자들이 지금도 울울창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따로 '변산송(邊山松)'이라 이름 붙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형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창건했다는 월명암 옛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 육당이 순례할 당시 월명암은 선방 신축 불사를 하느라 주변의 산림을 많이 훼손한 듯하다. 육당은 '털귀한 노인의 머리카락 같음이 몹시 애달프다'고 적고 있다. 지금 월명암의 모습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월명암에서 매표소가 있는 남녀치까지는 그리 가파르지 않다. 군데군데 소나무 군락이 있으나, 주종은 활엽수들이다. 가막살나무, 고로쇠, 붉나무, 까치박달, 쇠물푸레, 굴피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털꿩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 사람주나무... 등등이 활엽의 화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무도 이 숲의 주인으로 잘난 체 나서지 않는 나무들의 해방구이다. 이 가운데 흔치 않는 나무로는 굴피나무가 있다. 이름 때문에 굴참나무와 자주 헷갈리는 나무이다. 굴참나무 수피를 흔히 '굴피'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산간가옥인 굴피집은 굴피나무가 아니라 굴참나무 수피를 벗겨서 지은 집이다. 굴피나무는 수피는 얇고, 세로 무늬가 나 있어서 굴참나무와 크게 다르다. 예전에는 이 나무의 열매에서 검은색을 얻어서 옷을 염색하는 데 썼다고 한다.

쌍선봉(459)은 남여치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있다. 쌍선봉 정상에 서면 건너편으로 변산 최고봉인 의상봉(508)이 우뚝하고, 발 아래로 부안호가 푸르다. 그러나, 내려다보는 눈이 마냥 호쾌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5년동안 '용도변경'이라는 미명으로 훼손된 국내 국립공원 숲 면적이 35만5천평이나 되고, 그 가운데 용도변경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변산이기 때문이다. 택지개발과 도로 신설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숲이 무려 13만평이나 된다.



◇이호신作 '능가산 내소사' (163.5×405) 1999년.

글·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